차　　례

가사

제 1 과

애 국 가

박 세 영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보기읊기를 듣고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받아쓰세요.

빛나라, 삼천리, 반만년, 찬란한, 받드세, 온 세계, 한없이, 부강하는, 빛내세, 백두산, 기상을, 앞서나가리

❖ 《애국가》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굵은 목소리로 무게있게 천천히 읊어야 합니다. 노래의 선률을 생각하면서 가사의 감정을 살려 한개 절씩 읊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아래의 짧은글을 통하여 《**진리**》의 뜻을 리해하자요.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옳은 리치는 언제나 승리한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은 어떤 뜻일가요?

❖ 괄호안의 뜻을 보고 뜻같은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한없이(끝이 없이 크게): 가없이, 끝없이, 셀수 없이

부강하다(아주 강하고 풍부하다): 부흥하다, 강대하다, 강성하다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근로 (부지런히 일하는것) — 자, 인민, 정신

길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내내) — 빛내자, 전하다, 받드세

❖ 아래의 뜻을 보고 본문에 맞는 뜻을 찾아보세요.

기상—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것.

② 씩씩하고 억센 정신과 의지.

③ 날씨를 달리 이르는 말.

찬란하다— ① 빛이 사방으로 내뻗쳐 눈부시게 밝고 빛나다.

② 어떤 일이나 사물현상이 매우 훌륭하여 주위세계에 밝게 빛나다.

노도— 성난 파도라는 뜻으로 무섭게 밀려나가는 물결을 이르는 말.

노도의 힘은 굉장합니다.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는 어떤 뜻입니까?

내용을 알아내자요

❖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였습니까?

❖ 우리 인민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하였습니까?

❖ 이 과의 기본내용을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모든 나라들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이름, 기발, 노래, 꽃, 새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호, 국기, 국가, 국화, 국조라고 합니다. 다음의 [ ]안에 정확히 쓰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우리 나라의	국호는	[ ]	입니다.
	국기는	[ ]	
	국화는	[ ]	
	국가는	[ ]	
	국조는	[ ]	

❖ 국제경기에서는 1등한 나라의 국가를 연주하며 국기를 띄웁니다. 공화국영웅 정성옥선수가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 경기에서 1등을 하였을 때 우리 나라의 공화국기발이 하늘높이 오르고《애국가》가 연주되였습니다. 그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가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의 그림들은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보람차게 살며 일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모습입니다. 매 그림의 내용에 맞게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담아 1~3개의 문장들을 만들어보세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늘도 더 많은 기계를 만들자고 결의다지며 공장에 나갑니다. 방송에서 울려퍼지는 《애국가》의 선률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하늘에서는 새벽별이 반짝입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애국가》를 언제 어떤 때 들어보았습니까?
   - 《애국가》를 들을 때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2. 《기상》과 같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을 10개 찾아쓰고 설명해보세요.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각각 3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진리, 부강하다
4. 《맘》은 《마음》이 줄어든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말을 10개 찾아쓰세요.
5. 숭엄한 감정으로 다같이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애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를 때에는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을 안고 정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신 귀중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 사랑의 감정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모두가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해설글

제 2 과

전기가 하는 일

우리 생활에서 전기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란 무엇일가요?

전기는 기계를 돌리고 전기불도 오게 하는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 보냅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 여러가지로 나누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석탄도 캘수 있고 철과 기계도 만들수 있으며 농사도 헐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감이나 사탕, 과자는 물론 원쑤놈들을 잡는 총이나 대포, 비행기도 만들수 있습니다.

공장에 가봅시다.

콤퓨터의 마우스를 움직여 CNC선반을 씽씽 돌리는것도 전기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인 주체철, 비날론솜, 비료들도 모두 로동자아저씨들이 전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려 만들어낸것입니다.

농촌에 가봅시다.

여름철에는 전기로 양수기를 돌려 논밭에 넘실넘실 물을 대주고 또 가을에는 탈곡기를 돌려 벼를 훑어냅니다.

또 건설장에 가봅시다.

로동자아저씨들이 기중기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고 용접을 하는것도 전기가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랍니다.

그뿐인줄 아세요.

집집마다 전기불을 켜주고 콤퓨터나 텔레비죤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여주며 랭동기와 세탁기를 돌려주는것도 전기가 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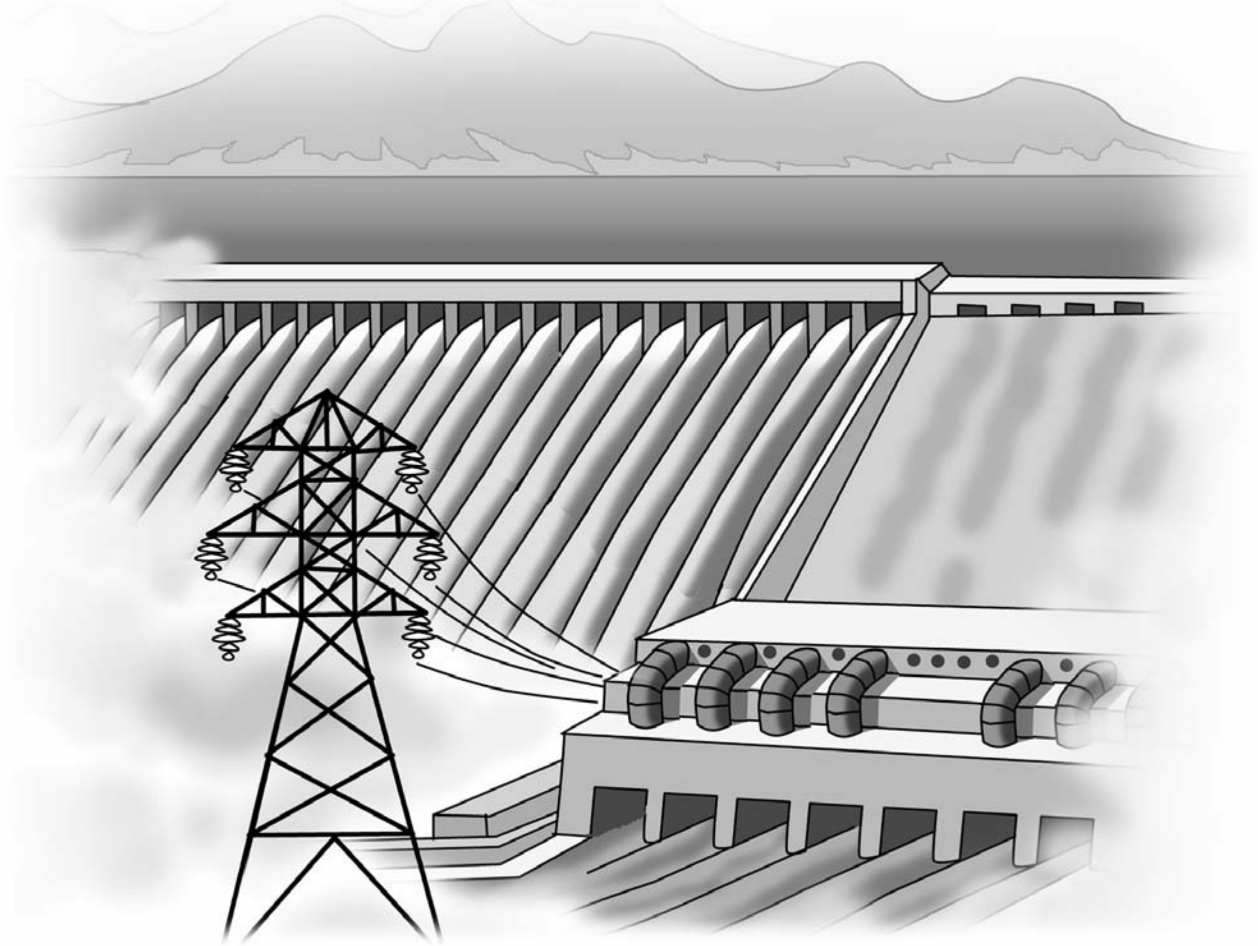
이밖에도 전기가 하는 일은 많고많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 나라에는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 있는 안변청년발전소, 녕원발전소,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에서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우리 나라를 전기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해설글의 특성에 맞게 천천히 또박또박 막히지 말고 읽어보세요.

❖ 아래에 있는 문장의 마지막단어들을 정확히 받아쓰기해보세요.

무엇일가요, 가봅시다, 벼를 훑어냅니다, 일이랍니다, 그뿐인줄 아세요, 나누입니다, 만들수 있습니다, 많고많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선반— 쇠를 깎아서 여러가지 부속품을 만드는 기계.

CNC선반은 콤퓨터프로그람에 의하여 자기 혼자 여러가지 기계 부속품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선반입니다.

주체철— 우리 식으로 생산하는 철.

우리 로동계급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들어 낸것이 주체철입니다. 주체철을 뽑을수 있게 기계를 돌려주는것도 전기입니다.

❖ 해당한 뜻에 줄을 그으세요.

비날론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을 털어내는 기계.
양수기	두 금속소재를 녹여 뗄수 없게 붙이는것.
탈곡기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뽑은 섬유.
용접	낮은 곳의 물을 퍼올리는 기계.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과는 무엇에 대하여 해설한 글입니까?

❖ 전기가 하는 일을 크게 몇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해설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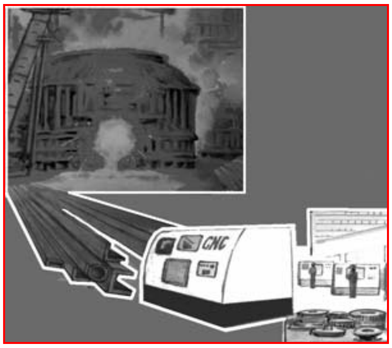
❖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발전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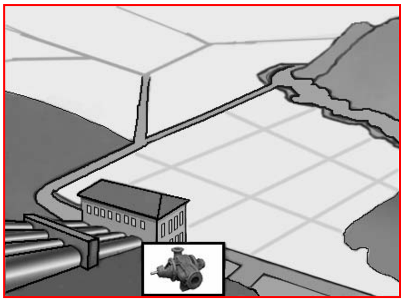
❖ 학생들은 마지막문장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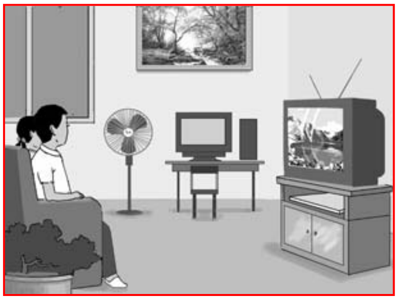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공장과 농촌에서, 살림집과 건설장에서 전기가 하는 일을 다음의 그림을 보면서 차례차례 말해보세요. 그림에 없는 내용도 보충하여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 전기가 하는 일이 많은것만큼 우리는 전기를 귀중히 여기고 아껴써야 합니다. 전기를 아껴쓰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실례를 들면서 말해보세요.

상 식

전기를 절약합시다

전등을 5분동안만 끄면 (전국적으로)

연필— 173만자루, 강철— 뜨락또르 29대 만들수 있는 량,
알사탕— 55만 4천kg, 신발— 10만 3천여컬레,
과자— 10만 3천kg, 석탄— 1 000세대가 1년동안 쓸 량,
천— 어른옷 4만 3천여벌 만들수 있는 량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발전소로서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태양열발전소, 풍력발전소, 지열발전소 등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여러 형태의 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전기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내가 만든 발전소》라는 제목으로 환상적인 이야기글을 지어보세요.

환상글이란?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무엇이 어떻게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그리며 생각하거나 상상하여 쓴 글입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제품들인지 책을 보거나 형님, 누나,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쓰세요.
2. 다음단어들로 각각 3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3. 본문에 나오는것밖에 전기가 하는 일을 알고있는것을 더 써보세요.
4. 《만일 전기가 없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8가지 내용으로 재미있게 말해보세요.
5. 희천발전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설글을 한페지정도 되게 지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지고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잘살수도 없고 나라가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동시

제 3 과

45 분

남 응 손

아이들아
가버린 시간은 다시 못 온다
45분의 공부시간은
너희들의 지혜가 커가는 시간이 아니냐

누가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고
뽈차던 생각만 하고있느냐
두릿두릿 눈만 팔고있느냐
선생님 물음에 손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수그린채 쩔쩔매는 아이는 누구며
종소리나기만 기다리는 아이는 누구냐

아이들아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못 온다
앞으로만 흘러가는 45분은
너희들을 더욱 총명하게 키우는 시간
선생님 말씀 마디마디엔
꽃피는 너희들의 앞날이 담겨있다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피는 꽃도 노래하는 새도
모두 너희들을 위해 피며 노래부른다

군대도 정치가도 학자도 기사도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는 이 시간
아이들아
너희들의 45분은 영광스러운 45분
차례진 너희들의 시간을 헛되이 말고
빛나는 앞날 향하여 달려나가라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감정흐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를 잘 읊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소리내여 읽으세요.

못 온다, 지혜, 귀담아듣지 않고, 두릿두릿, 수그린채, 앞으로만, 꽃피는, 앞날, 영광스러운, 차례진, 헛되이 말고, 빛나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비슷한 말에 줄을 그으세요.

두릿두릿	똑똑하고 령리하다
헛되이 말다	두리번두리번
총명하다	보람없이 되지 않다

❖ 《**눈을 팔다**》의 뜻을 알아보자요.

여기서 《팔다》는 《다른 곳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눈을 팔다》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딴데 정신을 돌리고있다》는 뜻으로 쓰인 성구입니다.

두개이상의 단어들이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을 **성구**라고 합니다.

❖ 《**쩔쩔매다**》의 알맞는 뜻에 밑줄을 그으세요.

어찌할바를 모르다, 미안해하다, 바늘방석에 앉다, 송구스러워하다, 기분나쁘다, 어색해하다

❖ 앞으로의 희망을 생각하며 다음단어들의 뜻을 살펴보세요.

정치가—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람.

기사— 일정한 분야의 기술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연구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맡아하는 기술일군.

학자— 배워서 아는것이 많고 과학연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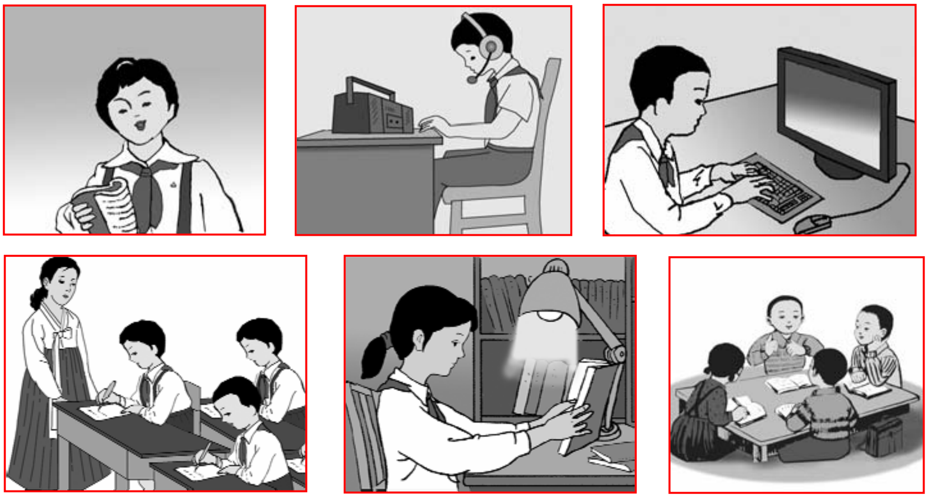
내용을 알아내자요

❖ 45분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였습니까?

❖ 이 과의 기본내용을 찾고 학습장에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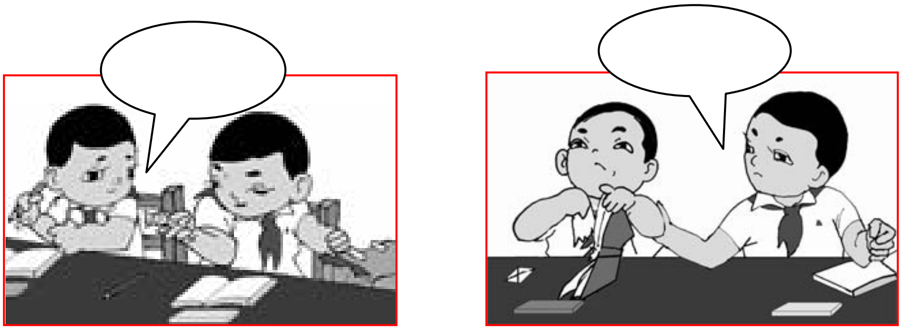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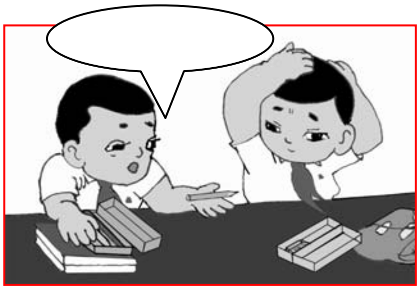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서 수업시간밖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체계를 잡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그림에 나오는 동무를 어떻게 깨우쳐주면 좋을가요?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주머니에 깨우쳐주는 다정하고 친절한 말을 써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외워서 한번 쓰세요.
2. 《두릿두릿》처럼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5개 찾아쓰세요.
3. 《45분》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시간에 실지 있었던 일과 결의를 내용으로 하여 3개 련으로 된 동시를 지어보세요.
4. 《눈을 팔다》와 같이 《눈》, 《코》, 《입》과 다른 단어가 합쳐진 성구를 각각 5개씩 찾아쓰세요.
5. 시간을 아껴 열심히 배우자는 내용의 시와 노래들을 3편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45분수업시간은 그 어느 시간보다도 제일 귀중한 시간입니다.

기행문

제 4 과

평양곡산공장을 찾아서

해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봄날 우리는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곡산공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은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서 몇차례나 다녀가신 뜻깊은 공장이랍니다.

며칠전부터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마음을 아는듯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 앞가슴의 넥타이를 어루만지며 함께 가자고 졸라대는것만 같았습니다.

공장앞에 이르니 안내원누나가 생글거리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내원누나는 공장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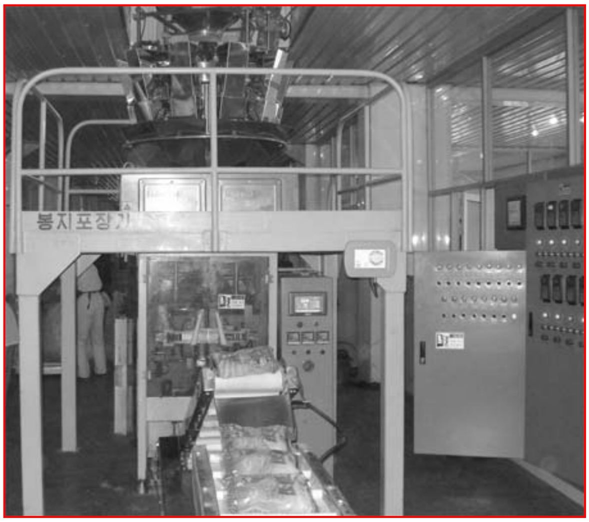
우리들이 제일먼저 가닿은 곳은 알사탕이랑 과자랑 만드는 당과류종합직장이였습니다.

그곳의 직장장아저씨는 기름사탕이랑 백합과자랑 그리고 새큼하고 파삭파삭한 과일향사탕인 드롭프스랑 다 이 직장에서 만들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종합조종실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거기서는 흰 위생복을 산뜻하게 입은 여러명의 조종공형님, 누나들이 콤퓨터에 마주앉아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적으로 되게 척척 조종하고

있었어요. 정말 동화세계에 온듯 한 기분이였어요.



여기에 와서야 처음으로 맛나는 알사탕이랑 백합과자랑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잘 알게 되였답니다.

우리는 화면으로 펼쳐지는 생산공정을 바라보며 저저마다 연방《야! 야!》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내원누나는 이어 우리에게 아버지장군님께 자기의 작업모습을 보여드린 조종공어머니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조종공어머니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셨던 그날은 주체99(2008)년 8월 비내리는 궂은날이였습니다.

그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콤퓨터로 능숙하게 조종하는것을 보시고 잘했다고, CNC화를 정말 잘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였답니다.》

정말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북방의 2 000리 눈보라길을 헤쳐가시여 주체철용광로를 일떠세운 성강의 로동계급앞에서 강재만 더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을 마음껏 먹일수 있다고 절절히 호소하신 아버지장군님.

되새겨보면 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던 그때 발전소건설장이랑 큰 공장들이랑 가셔야 할 곳이 얼마나 많고많으신 아버지장군님이시였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CNC화된 설비들에서 사탕이랑

과자랑 줄지어 쏟아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비오는 궂은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신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가슴들먹이는데 직장장아저씨는 우리를 생산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들큰한 과일향기가 풍기는 작업장에선 은빛으로 반짝이는 CNC설비들이 맛좋고 영양가 높은 사탕, 과자들을 연방 쏟아내고있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은 마냥 흐뭇해졌어요.

그럴수록 이 땅에 CNC화의 복을 안아오시려 아버지장군님 헤쳐오신 그 눈보라가 생각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눈앞엔 보여왔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사탕, 과자들이 거리의 식료품상점들에 그득그득 넘쳐나고 그것을 맛있게 먹으며 고운 웃음을 피여올리는 온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이!

그리고 아버지장군님의 소원대로 뜨거운 사랑속에 날로 아름다와질 앞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 계시여 더 큰 행복이 마중오는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공장을 나섰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기행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다른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자신있게 읽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써보세요.

평양곡산공장, 돌이켜보면, 들큰한, 많고많으신, 눈보라길, 맛좋고, 마주하고 앉아, 절절히, 흐뭇하다, 궂은날, 가슴들먹이는데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리해하자요.

조종공— 조종 ＋ 공

조종— 기계를 다루는것.

공— 어떤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수리공, 용해공

CNC화— <u>Computer</u>＋<u>Numerical</u>＋<u>Control</u>

콤퓨터 수자식의 조종

콤퓨터를 리용하여 기계의 모든 동작을 수자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것.

❖ 다음의 공장들에는 어떤 **원료**(생산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감)들이 있어야 할가요?

곡산공장— 방직공장—

기계공장— 옷공장—

❖ 밑줄에는 뜻같은말을, □안에는 반대말을 하나씩 더 써넣으세요.

련달아 계속, ______	**연방**	드문드문, □
깨끗하다, ______	**산뜻하다**	어지럽다, □
능란하다, ______	**능숙하다**	서투르다, □
발전되다, ______	**현대적이다**	락후하다, □
흐린 날, ______	**궂은날**	개인 날, □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글을 쓴 사람이 걸은 로정을 도해로 그려보세요.

❖ 곡산공장에 대하여 어떤것을 알게 되였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비오는 궂은날 아버지장군님께서 왜 곡산공장을 찾으셨을가요?

❖ 자기 고장에 깃든 아버지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기행문의 성격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생이 돌아본 곳중에서 제일 인상깊은 곳에 대한 기행문을 써보자요.

- 먼저 학습장에 간단한 체계를 쓰세요.
- 돌아본 곳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쓰세요.
- 마지막에 종합적인 느낌과 결의를 쓰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기행문과 해설글이 무엇이 다른지 2과와 대비하여 설명하세요.
2. 《연료》는 《원료》와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뜻일가요? 이렇게 소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뜻이 다른 말을 3개 더 찾아보고 뜻을 말해보세요.
3. 평양곡산공장에서 나오는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세요. 이 기행문을 배운 다음 그것을 먹을 때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자요.
4. 다음단어들의 반대말을 찾아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궂은날, 능숙하다

5. 학생이 살고있는 곳에 어떤 현대화된 공장들이 있는지 알고있는지요? 그 덕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간단히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탕, 과자를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로고속에 평양곡산공장은 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되였습니다.

이야기

제 5 과

병난 호랑이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먼 옛날 여러 짐승들이 모여사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짐승들은 동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했습니다.

동산의 왕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자기의 힘과 권세를 내두르며 매일 진탕치듯 먹고 마시고 노는것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늘그막에 그만 병에 걸리게 되였습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눈앞이 어질거리고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죽고싶은 생각이 꼬물만치도 없는 호랑이는 어느날 신하들에게 제일 용한 의사를 당장 불러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약삭바른 여우가 얼른 대답하고 염소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염소의사는 호랑이를 진찰했습니다. 호랑이의 병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병이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을 하면 병도 저절로 낫고 좀 더 살수 있겠지만 입빠르게 그런 말을 했다가 혼쌀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염소의사는 대왕님이 오래 살려면 첫째도 둘째도 몸과 마음을 편히 하는것이라고 귀맛좋게 말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말에 마음이 흐뭇해서 입이 찢어지게 웃어댔습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푹신한 이부자리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누워있자니 허리가 쑤시고 앉아있자니 무릎이 저렸습니다. 졸음도 오지 않고

겨우 잠에 들면 어지러운 꿈에 시달렸습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제일 믿는 신하인 시라소니를 불러 세상에 능하다는 의사란 의사를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소문난 딱따구리의사며 거부기의사를 불러왔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랑이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소문은 없지만 침술이 능한 황소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대왕님의 병을 고치자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소이다.》

《그래?… 방법이 있단 말이지… 산이 커야 그림자도 크다더니 황소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황소는 메고온 큼직한 망태기에서 호미와 낫, 쇠스랑따위의 농쟁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일을 하소이다. 일보다 더 좋은 약은 없는줄 압네다.》

행여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있던 호랑이는 성이 독같이 나서 노발대발했습니다.



《뭐? 뭐가 어째! 기껏 한다는 수작이 날더러 세상에서 제일 천한 일을 하라구? 여봐라! 게 누가 없느냐?》

그 소리에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저 못된 놈을 당장 끌어내다 매를 안겨라!》

황소는 호랑이를 무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소이다. 세상에서 제일 천한건 일이 아니라 대왕님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놈들이올시다! 그런 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찾아왔던 내가 어리석었지.》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누구도 호랑이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얼마후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호랑이는 끝내 죽어버리고말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세요.

구슬땀을, 흔쌀이, 제일 믿는, 진탕치듯, 귀맛좋게, 침술이, 늘그막에, 흐뭇해서, 쇠스랑따위의, 행여나, 끄물만치도 없는

❖ 호랑이와 황소의 대화를 표에 맞게 읽어보세요.

환 경	황소의사	호랑이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한 목소리로 천천히	병 고치게 되였다고 들뜬 소리로 좀 빨리
농쟁기를 내놓을 때	낮은 목소리로 엄하게	노발대발하여 큰소리로
황소를 당장 끌어 내라고 할 때	격분하여 낮고 굵은 목소리로	좀 떠듬거리며 거센 소리로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본문에 맞는 뜻을 찾으세요.

용하다— ① 재간이 남보다 좋다. ／ 의술이 용하다.

② 기특하고 장하다. ／ 어리지만 용하다.

③ 성질이 착하고 순하다. ／ 마음이 용하다.

❖ **진찰**(무슨 병이 있는가 알아보는것)방법을 보면서 뜻을 새겨보자요.

들어보기, 살펴보기, 만져보기, 두드려보기 …

❖ 좋은 일을 기대할 때일가요, 나쁜 일을 예감할 때일가요?

호랑이는 **행여나**(혹시나) 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 어울리는 말들을 써넣고 뜻을 리해하자요.

☐ — **쇠약하다**		**귀맛이** — ☐	
☐ — **쑤시다**		**권세를** — ☐	
☐ — **흐뭇하다**		**진탕치듯** — ☐	
☐ — **능하다**		**약삭바른** — ☐	

❖ 《**꼬물**》(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량)은 무엇과 붙여쓸가요?

《～도, ～만큼, ～만치》와 붙여 문장을 지어보세요.

❖ 다음의 표현들은 어떤 뜻입니까?

성이 독같이 나다, 노발대발하다, 무섭게 노려보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어디서 있은 일입니까?

❖ 병든 호랑이에게 염소의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 황소의사의 말을 듣고 호랑이는 왜 노발대발하였습니까?

❖ 호랑이는 끝내 어떻게 되였습니까? 왜 그렇게 되였습니까?

❖ 본문에서 기본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에 나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표에 내용을 쓰고 조리있게 말해보세요.

병 난 원 인	
병 고칠 방법	
호랑이의 고집	
결 과	

❖ 학생이 지난 기간 로동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돌이켜보자요. 집이나 학교에서 작업이나 청소할 때 일하기 싫어 꾀를 부린적은 없는지요? 그때 결과가 어떠했는지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호랑이에게 하고싶은 말, 황소에게 하고싶은 말, 염소나 여우, 시라소니에게 하고싶은 말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편지로 써보세요.

❖ 아래에 서로 다른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매 글에 어떤 제목을 달수 있을가요? 알맞는 제목을 달아보세요.

① 오늘 공부가 끝나자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 록화근위대활동에서도 우리 학급이 학교적으로 제일 높이 평가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학습에서도 조직생활에서도 좋은일하기운동에서도 제일모범인 우리 학

급이 송도원야영을 가게 되였습니다.》

《야! 그럼 금강산에도 가고 해수욕도 하게 되겠구나!》

우리는 모두 환성을 올리였습니다.

② 간밤에 내린 이슬비에 우리 학교 교재원도 깨끗이 씻기여 한층 더 푸르러보입니다.

하늘하늘 봄바람에 꽃잎들도 춤을 춥니다.

목란꽃나무잎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입니다.

우리들이 흘린 땀방울이 스며서인가 더욱 아름다와보입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일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가요?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2. 《용하다》의 세가지 뜻이 다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3. 본문에서 생동한 표현들을 찾아쓰고 뜻을 말해보세요.
4. 《귀맛》과 같이 《맛》이 들어간 단어들을 5개 찾아쓰고 설명해보세요.
5. 본문을 집식구들에게 옛말해주듯이 재미있게 말해보자요.



꼭 새겨두자요

일하는것을 천하게 여기며 계속 놀고먹기만 하면 결국 오래 살수도 없고 병들어 죽고맙니다.

동시

제 6 과

우리 교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동시)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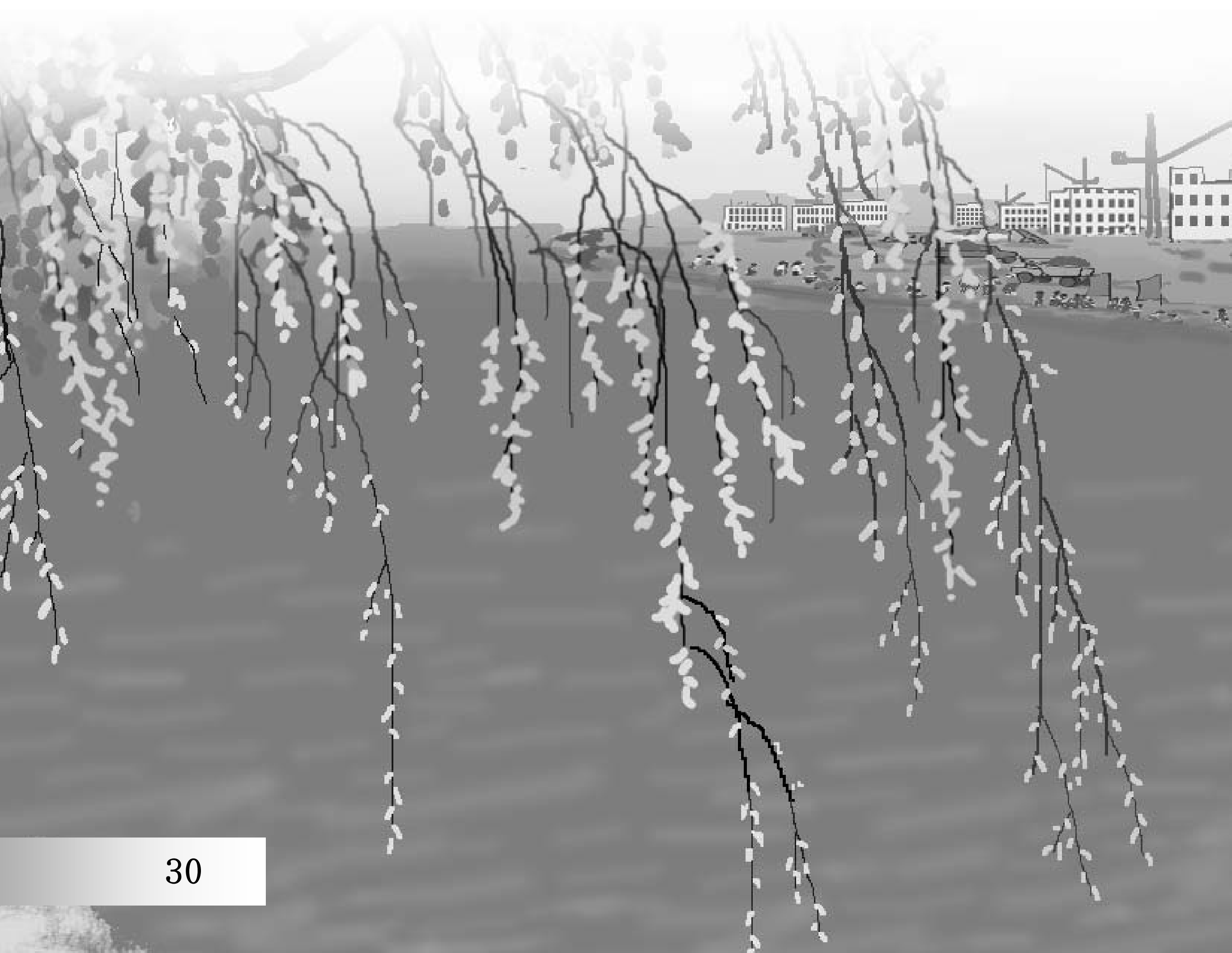
오늘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듯이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노래하자! 원수님을…
우리는 승리하였네
행복한 민주의 터전은 건설되네
노래하자! 우리의 원수님을…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 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우리는 언제나 받드네 원수님을…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 나라 일군이 되자!
항상 준비하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동시는 밝고 정중한 마음으로 잘 읊어야 합니다. 매 련을 어떻게 읊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그대로 읊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따라읽으면서 발음을 익히고 정확히 써보세요.

환하게, 봄바람에, 알뜰한, 일군, 추운 겨울은, 반가운듯이, 너그럽게, 받드네, 푸르렀네, 실버들, 착한, 웃으시며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민주—《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줄여서 쓴 말로서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의미합니다.

❖ **《환하게, 우렁찬, 알뜰한》**중에서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세요.

☐(빈구석이 없이 착실하고 실속있는) — 살림군

☐(소리의 울림이 굉장히 크고 힘있는) — 노래소리

☐(아주 밝고 시원하게) — 웃다

❖ 본문에서는 어느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일군— ① 일을 책임적으로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

② 간부, 책임자를 달리 이르는 말.

③ 낡은 사회에서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터전— ① 집을 지을 땅.

② 사업과 생활의 밑바탕.

《민주의 터전》이란 어떤 뜻일가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시의 사상감정을 매 련에서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 시의 기본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교실을 왜 아름다운 교실, 재미있는 교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 학생은 매일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있는 교실에 대하여 느끼고있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곱게 쓰자요

우리 교실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 이 동시를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한번 곱게 쓰세요.
- 도움선을 기준으로 하여 받침이 어떻게 놓였는가를 잘 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동시를 외우고 시의 사상감정을 살려 잘 읊어보세요.
2. 이 동시에서 기본내용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어느 련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3. 다음표현들의 뜻을 말하고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아름다운 교실—

   재미나는 교실—

   알뜰한 교실—

4. 다음단어들의 여러가지 뜻을 다 말하고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일군, 터전

5. 맞춤법에 맞게 쓴것에 ○를 치시오.

갈히 / 갈이	간곡히 / 간곡이	황황히 / 황황이	말끔이 / 말끔히
고요히 / 고요이	절절이 / 절절히	유난히 / 유난이	따뜻이 / 따뜻히

《이》, 《히》가 들어간 말 쓰기

❖ 받침 《ㄴ, ㄹ, ㅁ, ㅇ》뒤에서는 언제나 《히》를 써야 합니다.

고스란히, 삼삼히, 알뜰히, 당당히

그러나 《알알이, 줄줄이, 일일이, 실실이》와 같은 말은 《이》로 써야 합니다.

❖ 받침 《ㄷ, ㅌ, ㅅ, ㅍ, ㅎ》뒤에서는 언제나 《이》로 써야 합니다.

굳이, 살살이, 꿋꿋이, 높이, 알낳이

❖ 받침 《ㄱ, ㅂ》뒤에서는 발음해보고 《히》로 발음되면 《히》로, 《이》로 발음되면 《이》로 써야 합니다.

나직이, 섭섭히, 정확히, 첩첩이



꼭 새겨두자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복구건설의 동음 힘차게 울리던 희망찬 봄계절, 날마다 교실에 들어서는 학생들의 가슴속에 차넘친것은 공부를 잘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받드는 앞날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날 뜨거운 열망이였습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과 — 6과)

1.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지으신 시를 5편이상 말해보세요.

   제목—

   지으신 날자—

   내용—

2. 다음의 물음에 대답해보세요.

   ㄱ.《애국가》는 언제 어떻게 창작된 노래입니까?

   ㄴ.우리 나라에는 어떤 발전소들이 있습니까?

   ㄷ.《45분》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ㄹ. 기행문은 어떤 차례로 씁니까?

3. 1—6과까지에는《봄바람》과 같은 합친말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모두 찾아보고 다음문제를 풀어보세요.

   단어《알사탕》,《실버들》,《망태기》,《발전소》,《 주체철》,《삼천리》,《전기불》,《정치가》,《종소리》,《구슬땀》이 군사놀이를 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대장아이가 오늘은 합친말만 데리고 하겠다고 하면서 그들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단어들이 나섰을가요?

4. 《～가》는 여러가지 뜻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뜻에 따르는 단어들을 5개이상 찾아쓰세요.

   노래— 《애국가》,

   사람— 음악가,

   부분— 강가,

5.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하는 호랑이가 혼나는 내용의 동화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가요? 아래학년에서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보세요.

왜 동화들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내세웠을가요?

6. 어느 과에 맞는 속담인가를 찾고 속담을 넣어 2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 일이 곱지 얼굴이 곱나.
   - 아는것이 힘이다.
   -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
7. 학생은 최근에 CNC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것입니다. 학생이 리해하고있는 CNC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자기가 공상하는 CNC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8. 수수께끼
   -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것이 무엇일가요?
   - 가면 오고 오면 가는것이 무엇일가요?
   - 제것은 제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것이 무엇일가요?
9. □안에 《말을 듣다》의 뜻에 알맞는 글자를 써넣으세요.
   ㄱ. 말을 □습니다.
   ㄴ. 말을 □으려고 합니다.
   ㄷ. 말을 □을것입니다.
   ㄹ. 말을 □겠습니다.
   ㅁ. 말을 □었습니다.
   ㅂ. 말을 □고 가겠습니다.
10. 《로동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5～7개 문장으로 된 해설글을 지어보세요.
    - 로동이란 어떤것인가?
    - 로동은 왜 좋은가?
    - 로동을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맺는말

단편소설

제 7 과

행복동이들

푸근한 날씨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쉼없이 내리는 눈발을 헤치며 시내길에 들어섰다.

눈송이들은 유리창에 희디흰 별꽃을 수놓다가는 어느새 물방울이 되여 굴러내린다. 눈이불을 덮어 축 늘어진 가로수들이 차창밖으로 흘러간다.

눈발속으로 공원이 보인다. 거기서는 아이들이 공을 따라 새떼처럼 몰려가고 몰려오고 하였다. 그들의 발밑에선 눈안개가 뽀얗게 피여오르는데 이쪽저쪽으로 공이 쉴새없이 튀여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차창을 닦으시며 아이들을 바라보시였다.

《꼬마들의 축구가 맹렬하구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축구경기에 나선 심정이시였다.

갑자기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었다. 교통보안원이 차길에서 공을 집어내고있었다. 아마 어느 애가 빗찬 공이 공원울타리를 날아넘어온 모양이다. 그는 공을 한손에 움켜쥐고 성난 눈길로 공원쪽을 휘둘러보았다.

《차를 세우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생나무울타리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모자와 얼굴들이 빠끔히 내민다.

교통보안원이 공을 쥔 손을 내흔들며 소리친다.

《이녀석들！ 어디 좀 혼나봐라.》

순간 생나무울타리에 조롱조롱 열렸던 털모자, 고깔모자, 스키모자들이 요술이나 부리듯 자취를 감췄다. 울타리꾹대기에 쌓였던 눈만이 푸시시 흩어져내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교통보안원은 황황히 구두뒤축을 모아붙이며 거수경례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인사를 받으시고서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공이 이렇게 자주 날아오오?》

《예, 좀전에도… 그래서 달리던 차들이 멎었댔습니다. 방금 쫓아버렸댔는데… 정말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쫓아버려도 또 와서 찬단 말이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을 받아드시고 꾹꾹 눌러보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되뇌이시였다.

이때 울타리너머에서 아이들의 또렷또렷한 웨침소리가 들렸다.

《경애하는 장군님!…》

기쁨과 놀람과 환희에 찬 아이들의 얼굴이 키돋움하며 솟아올랐다. 저마다 울타리를 먼저 넘으려고 덤벼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관아저씨에게 공을 넘겨주시고 아이들쪽으로 발길을 돌리시였다.

급해서 어쩔줄 모르던 아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시는쪽으로 달리였다.

《천천히, 천천히, 넘어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뛰여오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눈도 털어주시고 벗겨진 단추도 채워주시였다.

《그래 축구를 하댔느냐?》

《예, 축구경기를 하댔습니다. 오늘은 예선경깁니다. 이기면 래일 준결승을 합니다.》

《준결승을?…》

《예, 일요일엔 결승경기를 합니다.》

《허, 아주 대단한 경기였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량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대견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기들의 축구경기가 무슨 국가선수단의 경기로 인정되기라도 하듯 조그마한 가슴들을 내밀고 뻐기였다.

《그럼 어디 너희들의 경기장에 좀 들어가볼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야!》 하고 환성을 올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공원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몇그루 안되는 전나무들사이로 키크기륜이며 미끄럼대가 서있는 한쪽켠, 방금 아이들의 경기장으로 되였던 넓지 못한 마당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길에 엷은 그늘이 비끼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자, 어서 경기를 해봐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정한 말씀이 울렸으나 여전히 공에 손을 내미는 아이는 없었다.

《일없다. 어서 경기를 마저 하거라.》

그제야 아이들은 공을 받아들고 저마끔 달려나갔다. 조그마한 발들이 닿는 곳에선 눈가루가 피여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깨며 가슴에 수북이 쌓인 눈을 터실념도 않으시고 아이들의 공차는 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승용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교통보안원동무, 애들이 차가 다니는 길로 공을 주으러 가는건 위험하지…》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에서 못 차게…》

《그랬을테지…그래도 애들은 가만가만 공을 찼을거구…》

《…》

《우리 애들의 공차기놀음이 늘 구속을 받았겠군… 애들이 눈치까지 봐가며 공을 차다니… 안될 일이요.》

교통보안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믿음이 담긴 어조로 백양나무 같은것을 배게 심어 공이 날아가는것도 막고 경치도 좋게 해주자고, 그리고 마당도 더 넓게 닦아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사이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점심도 건느신채 곧바로 회의장에 가셔야 하는줄을 행복동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공을 좇아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교통보안원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승용차는 눈우에 바퀴자욱을 남기며 가벼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을 소설글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의 행동과 말이 잘 살아나게 또박또박 맑은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 본문에 나오는 둘받침단어들을 모두 찾아서 쓰고 발음법대로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뜻같은말에 줄을 그으세요.

급히	**되뇌이다**	우쭐대다
뽐내다	**대견하다**	당황하여
뿌옇다	**삐기다**	만족하다
세차다	**황황히**	반복하여 말하다
되풀이하다	**맹렬하다**	허옇다
흐뭇하다	**뽀얗다**	치렬하다

❖ 다음단어들의 차이를 보며 뜻을 새겨보자요.

〈 눈이 내려 푸근한 날씨 /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

〈 모자우에 눈이 수북이 쌓이다 / 그릇에 밥이 듬뿍 담기다

❖ 짧은글을 보면서 뜻을 새겨보자요.

- 아이들은 공을 **좇아다니기에**(따라다니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 옥이는 영웅이 된 아버지를 **환희**에 넘쳐 맞이하였습니다.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거수 (손을 드는것)
- **경례**(몸동작으로 하는 인사)
- 가결(찬성하여 결정하는것)

구속 ─┬─ 을 받다
(얽어매는것) ├─ 에서 벗어나다
└─ 의 쇠사슬

❖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은 무엇을 나타내고있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가요?

순간 생나무울타리에 조롱조롱 열렸던 털모자, 고깔모자, 스키모자들이 요술을 부리듯 자취를 감췄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차는 왜 갑자기 속도를 늦추었습니까?

❖ 교통보안원은 왜 차길에서 아이들이 뽈을 못 차게 하였습니까?

❖ 기본내용—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아이들을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이야기.

똑똑히 듣자요

❖ 《조선과 단군》

- 어떤 내용인가를 잘 새기며 들어야 합니다.
- 들은 내용과 자기가 생각한것을 말해보자요.

말은 그 뜻을 새기며 들어야 한다

듣기활동은 말소리듣기, 내용을 리해하고 분석하기, 평가내리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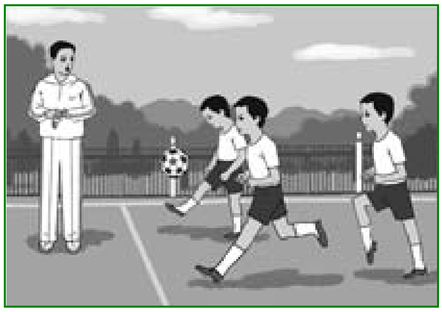
- 말을 새기며 들으려면
  ▶ 우선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가, 왜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말하는 내용의 차례를 가를수 있어야 합니다.
  ▶ 다음으로 들은 내용에 대해 자기 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축구경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글을 지어보자요.

그림을 보면서 문장부호가 5개정도 들어가게 지으세요.









문장부호

〈 〉거듭인용표— 인용표안에 또 인용표를 써야 할 때.

례:《철이야, 오늘 아동영화〈령리한 너구리〉를 보았니?》

： 두 점— 뒤의 설명이 있을 때, 경기에서 득점을 알릴 때.

례 : 주의: 끓인 물을 마실것.

번개팀이 우리팀을 3 : 0으로 이겼다.

[ ] 꺾쇠괄호— 괄호안에 또 다른 괄호를 쳐야 할 때.

례 : 《아홉살에 영생을 산 소녀》

〔《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1), 78페지〕

?! 물음과 느낌을 동시에 나타낼 때.

례 :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되였다구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단편소설과 이야기글과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밑줄친 말들을 생동한 표현으로 고쳐쓰세요.
   - 눈이 쌓여 축 늘어진 가로수들이 차창밖으로 련이어 보인다.
   - 아이들이 눈을 밟는 곳에선 눈가루가 날아올랐다.
   - 승용차는 눈우에 바퀴를 굴리며 조용히 달리기 시작하였다.
3. 이 과에 나오는 겨울의 눈에 대한 생동한 표현들을 다 찾아쓰세요.
4. 다음말들의 순서를 정하고 한 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준결승경기, 결승경기, 예선경기

5. 두 단어의 뜻과 차이점을 말하고 함께 넣어 짧은글을 각각 지어보세요.

   ① 환희, 환히

   ② 구속, 구석

   ③ 쫓다, 좇다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습니다.

이야기

제 8 과

백 리 향

해방후 어느해 봄날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만나뵈오려고 찾아왔던 항일혁명투사들은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 창문가에 새로운 꽃밭이 생겨난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새로 생겨난 꽃밭도 놀라왔지만 그들이 더욱 감동된것은 좀처럼 옮겨심기가 어렵다는 백리향이 정원에서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 창문가의 꽃밭으로 옮겨지고 만발하게 피여있는것이였습니다.

꽃밭에서는 백리향의 그윽한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며칠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 창문가에서 정원의 꽃밭을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습니다.

어느때 보아야 꽃밭이 좀 멀어보이고 게다가 바람결이 맞지 않아서 꽃향기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흘러들지 않는것이였습니다.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을 보시는 대원수님께서 그윽한 꽃향기를 맡으시며 잠시나마 피로를 푸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항상 어머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때부터 여러날동안 꽃밭의 향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드는가를 세심히 관찰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나서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창문가에 제일 향기그윽한 백리향꽃나무를 옮겨심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습니다. 그만큼 백리향은 옮겨심으면 자래우기가 힘든 꽃나무로 알려져있었던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해질무렵 정원에서 백리향을 손수 뜨시였습니다.

이때 경위대원들이 달려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어머님께서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씻으시며 이 백리향도 키워보니 그렇게 살리기 어려운 꽃나무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웃으시였습니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경위대원들과 함께 백리향을 심으시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한들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그것이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피우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부터 온갖 지성을 다하여 새로 옮겨심으신 백리향을 정성껏 가꾸시였습니다. 꽃나무를 가꾸시는 어머님의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방의 창문가에 새로 생겨난 꽃밭에서는 백리향의 향기가 풍기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에서 마지막 4개 문장에 읽기부호표식을 하고 그에 맞게 감정을 잡아 잘 읽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어보고 한번 쓰세요.

만나뵈려고, 바람결이, 백리향을, 꽃밭이, 맞지 않아서,
씻으시며, 놀라왔지만, 흘러들지, 조용히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괄호안에서 뜻같은말을 찾고 밑줄 그은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쓰세요.

정원(마당, 뜨락, 공원)에 ____________

관찰(관심, 연구, 탐구)을 ____________

지성(정성, 열성, 극성)이 ____________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며 뜻을 새겨보세요.

꽃들이, 웃음꽃이 〉 **만발하다**

그윽한 〈 향기, 눈길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이야기는 언제 어느때 있은 일입니까?

❖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백리향을 왜 옮겨심으시였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백리향은 어떤 꽃나무입니까? 하나하나 설명해보세요.

향기, 잎모양, 꽃, 열매

❖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드릴 어떤 좋은 일을 찾아하겠는지 학생의 결의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학생은 어떤 꽃을 제일 사랑합니까?

그 꽃을 심고 가꾸어 피워본적이 있습니까?

《내가 피운 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의 내용을 5개 문장으로 줄여 써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빠지지 않게 써야 합니다.

2.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위하여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지성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생이 알고있는 내용을 1~2가지 말해보세요.

3. 목란꽃, 은방울꽃, 진달래는 어떤 꽃들일가요?

각각 2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짓기를 통하여 설명해보세요.

4. 향기가 강한 꽃들이 또 어떤것들이 있는지 학생이 알고있는 꽃들을 말해보세요. 그 향기를 맡을 때 감정이 어떤지도 말해보세요.

5. 다음단어들의 두가지 뜻을 말하고 한 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만발하다, 그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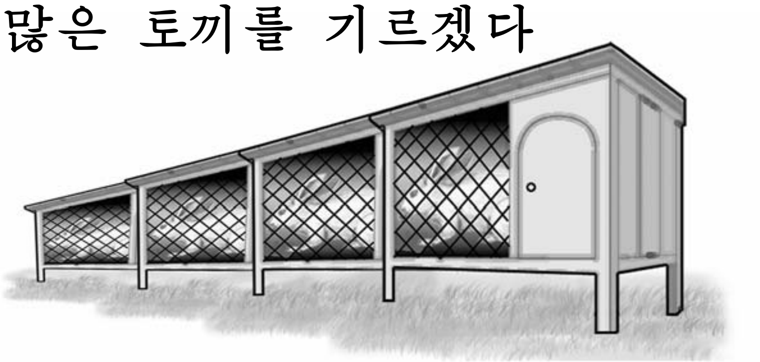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기어이 해내시며 자신의 모든 지성을 다 바치신 위대한분이십니다.

토론글

제 9 과

더 많은 토끼를 기르겠다



저는 토끼를 더 많이 기를데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토끼는 빨리 크고 번식이 빠르며 기르기 쉽습니다. 토끼는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를수 있습니다.》

토끼기르기는 나라살림에 보탬을 주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 소년단반에서는 지난해에 모두가 힘을 합쳐 106마리의 토끼를 길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살려 올해에 150마리의 토끼를 길러낼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에는 결의목표를 반드시 실천할 뜨거운 마음이 불타고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토끼를 잘 기를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토끼기르기가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이 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끼먹이를 넉넉히 마련하겠습니다.

토끼를 많이 기르자면 먹이가 많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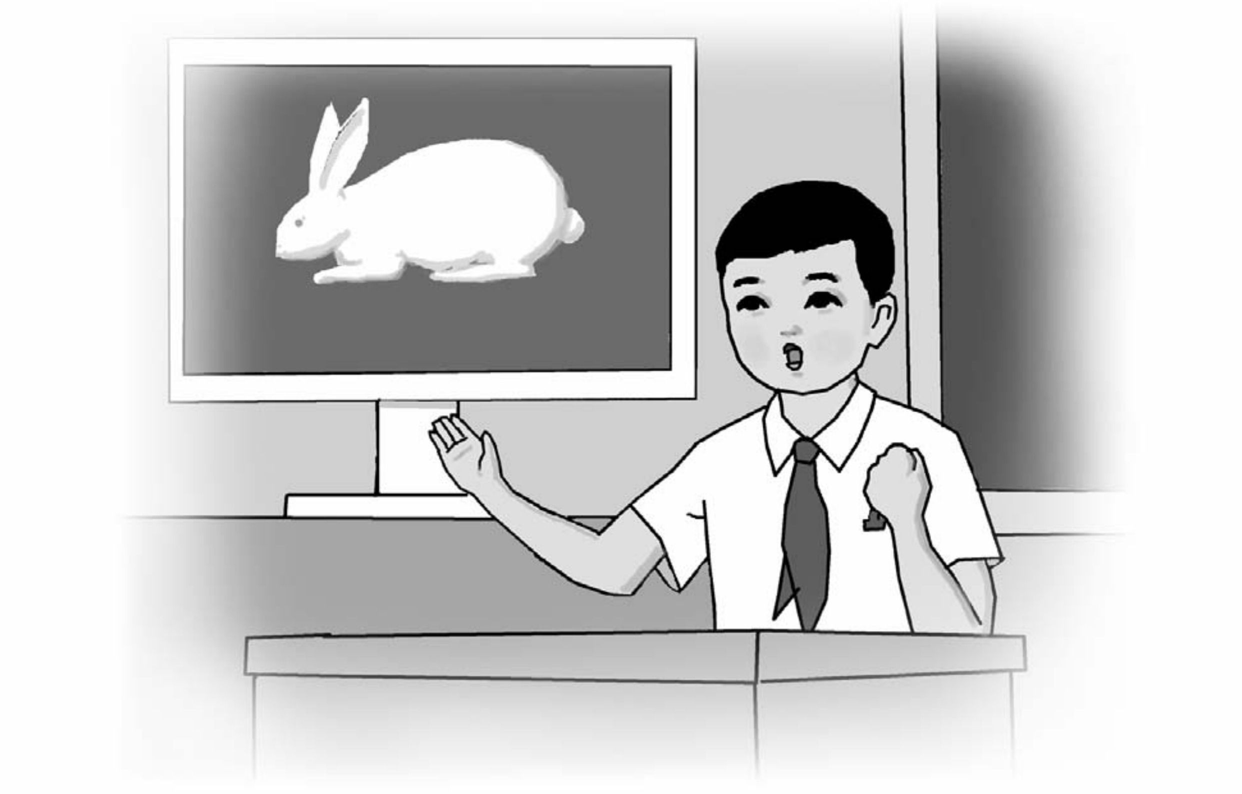
우리는 분공조직을 잘해서 매일 모든 동무들이 여러가지 토끼풀을 뜯어오게 하겠습니다. 아카시아잎, 싸리잎, 콩깍지, 칡, 시래기 등 여러가지 먹이를 잘 말리워 겨울나이먹이를 장만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자토끼를 잘 키워 튼튼한 토끼새끼를 많이 내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자토끼를 따로 골라놓고 피둥피둥 살찌우겠습니다. 겨울에는 추워하지 않도록 온돌도 놓아주고 굴도 파고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미토끼들이 이른봄부터 새끼낳이를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동무들이 여러가지 책들을 보면서 토끼기르기 지식을 넓혀 토끼의 병을 제때에 알아내고 고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해에 150마리이상의 토끼를 기어이 길러내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본문은 토론글입니다. 토론하는것처럼 힘있게 그리고 맑은 보통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르게 한번 쓰세요.

밑줄친 글자들에 주의를 돌리세요.

똑똑히, 콩깍지, 새끼낳이, 쉬운 일, 넉넉히, 겨울나이, 많이, 기르자면, 제때에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의 그림은 토끼먹이로 쓰이는 **아카시아, 싸리, 칡**의 잎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경험, 보탬, 분공**》중에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세요.

나라에 □(이미 있는것에 더하여 많아지게 하는것)을 주다.

토끼기르기□(직접 해보면서 알게 되는것)이 풍부하다.

조직의 □(구체적인것을 나누어 맡기는것)을 수행하다.

❖ 본문에서 《**목표**》는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① 사격이나 공격할 때 대상으로 되는것.

② 투쟁이나 활동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것.

온돌— 밑으로 불을 때서 방을 덥히게 만든 방바닥.

❖ 《넉넉히》의 알맞는 뜻에 ○를 치세요.

- 꼭 맞는다.
- 쓰고 남을만큼 풍부하다.
- 모자라지 않을만 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학생은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까?

❖ 지난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습니까?

❖ 올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이 학생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영명이네 분단동무들이 꽃밭을 잘 가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습니다.

분단위원장 : 우리 분단에서 학교정원의 꽃밭을 맡아 관리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꽃밭을 더 잘 관리하고 꽃을 더 잘 가꾸겠는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무들의 의견을 발표해주십시오.

영명 : 저는 꽃밭당번을 조직해가지고 당번동무들이 일찍 학교에 나와서 꽃밭에 물을 주고 어린 동무들이 꽃밭에 망탕 들어가지 않도록 잘 타일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꽃밭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높아지고 또 제때에 결함도 바로잡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옥심 : 제 생각에는 자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꽃밭에 물을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밭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표말도 박아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스스로 우러나오는 행동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또 사정이 있는 동무들도 따분하지 않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림 : 저는 녀동무들만 꽃밭가꾸기를 하자는것입니다. 남동무들은 덤비면서 오히려 꽃나무에 피해를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밭에 들어가면 안된다는것을 표말에 그림으로 그려주면 보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네 동무들이 각각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습니까?
- 네 동무들의 토론에서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학생이라면 어떤 토론을 하겠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수학학과경연에서 모두가 최우등생, 우등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학급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 이 모임에서 학생이 하게 될 토론글을 써보세요.
- 다 쓴 토론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완성하세요.
- 자기가 쓴 토론글을 가지고 동무들앞에서 토론해보세요.

토론을 잘하자면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대중앞에서 말하는것입니다. 토론은 회의나 모임에서 합니다.

▶ 먼저 토론할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기의 주장이 정확히 표현되도록 토론글을 잘 써야 합니다.

▶ 토론하기 전에 토론할 내용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합니다. 체계와 순서를 미리 외워둘수도 있습니다.

▶ 토론할 때 례절을 잘 지키며 문화성을 높여야 합니다. 말에서 틀을 차리거나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대중이 리해하기 쉬운 입말투로 해야 합니다. 자기를 가리킬 때에는 《제가》, 《저는》 등으로 낮추고 대중을 가리킬 때에는 《동무들이》, 《여러분이》 등으로 높여 말하여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토론글이란 어떤 글입니까? 토론글 쓰는 체계를 말해보세요.
2. 토끼와 관련한 속담을 3개 찾고 뜻을 설명해보세요.
3. 《겨울나이》, 《새끼낳이》에서 《나이》와 《낳이》는 소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뜻은 서로 다릅니다. 뜻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각각 짧은글을 지어 나타내보세요.
4. 다음말들은 어떤 때 쓰는 표현들입니까? 각각 3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놀란 토끼눈, 토끼심장처럼 팔딱팔딱하다, 토끼뜀을 하다
5. 회의에서 하는 토론과 공부를 하면서 동무들과 하는 토론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토끼는 우리에게 따뜻한 털과 맛있는 고기를 주는 좋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토끼를 길러서 나라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이야기

제 10 과

아홉명의 배사공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옛날 한 섬에서 있은 일입니다.

밤새도록 세찬 빗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외딴섬으로 다 마사진 배 한척이 파도에 떠밀려왔습니다. 배우에는 여러명의 사람들이 쓰러져있었습니다.

얼마뒤에 사람들이 하나, 둘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모두 열명이였습니다.

그들은 섬에 올라 삭정이를 주어다가 불을 피워놓고 옷을 말리워 입었습니다.

《자, 이젠 여기서 떠날 때까지 살아나갈 일을 의논합시다.》

그중 나이가 많아보이는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섬형편을 알아보려고 제일 젊고 날파람있어보이는 사람 둘을 뽑아 섬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섬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범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두 젊은이는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싸우자고 하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어데선가 나무가지를 헤치는 소리가 나더니 황소만 한 범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은 눈깜빡할 사이에 달려가 그 사람을 덮쳤습니다. 저혼자 살겠다고 내뺀 사람은 이렇게 범에게 잡혀먹히고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음날부터 나무를 베여다가 배를 뭇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어서빨리 배를 무어야 집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열흘도 안 걸려서 배를 다 무었습니다.

드디여 배는 섬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한 사람은 키를 맡고 나머지 여덟 사람은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기운차게 나아갔습니다. 섬은 까마득히 멀어졌습니다.

이때 눈이 둥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던 한 사람이 문득 노젓기를 그만두고 키잡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린 어디로 가는가요?》

《뭍으로 가지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면 당신네 집은 가까와지지만 내가 갈 곳은 더 멀어진단 말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떠들썩하며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키를 서남쪽으로 돌리시오. 그래야 나는 집으로 갈수 있소.》

《아니요. 난 동북쪽으로 가야 하오.》

서로들 떠드니 정말 야단났습니다. 키잡이는 할수없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러자 배는 물결을 따라 향방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날도 어두워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부터 하늘인지 가려보기 어려웠습니다.

한숨만 쉬던 나이많은 사람이 그러지들 말고 의논들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 고집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키잡이를 번갈아가며 하게 되였습니다.

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뚜렷해지더니 해가 솟았습니다.

《뭍이다！》

사람들은 일시에 일어나 두팔을 높이 쳐들어 흔들며 감격에 목메여 소리쳤습니다.

멀리에 산봉우리가 보이자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 멍청하니 앉은채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뭍이 아니라 어제 떠났던 바로 그 섬이였습니다.

아홉명이 다 제 갈 길만 생각하고 키를 잡다보니 뭍으로 간다는 것이 밤새껏 섬을 한바퀴 돌았던것입니다.

그제야 아홉명의 배사공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아, 이젠 어쩌면 좋단 말이요.》

《사공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더니… 우리가 멍텅구리였소.》

그들은 이튿날 다시 배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키를 한사람이 잡고 여덟명이 힘을 합쳐 노를 저었습니다. 이젠 더는 제 갈 곳만 고집하느라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씽씽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절이 지나자 수평선너머에 길게 뻗어간 산발이 보였습니다.

뭍이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과에서 사공들이 다툼질하는 대화를 살려읽어보세요.

❖ 밑줄친 글자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쓰세요.

빗바람이, 휘몰아치던, 불을 피워놓고, 눈깜박할 사이에, 이튿날, 잡혀먹히고, 배를 뭇기, 젊은 사람, 여덟 사람, 주저앉고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빗바람— 비를 몰아오면서 부는 바람.

비와 바람을 나타내는 단어 《비바람》도 있습니다.

경계— 두 지역이 갈라지는 사이에 있는 계선.

군(구역)이 갈라지는 경계: 군경계

도(시)가 갈라지는 경계: 도경계

경계 < 선 / 점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는 경계를 국경이라고 합니다.

삭정이—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있으면서 말라서 죽은 나무가지.

향방없이— 어느쪽으로 움직여야 할지 모르고 마구.

수평선— 바다의 물면이 하늘과 닿아 직선으로 보이는 선.

뭇다— 여러가지를 한데 붙이거나 이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

~척— 배를 셀 때 쓰는 단위./ 배 한척을 무어 바다에 띄웠다.

《~알, ~마리, ~권, ~대, ~명 …》과 같이 수자뒤에 붙어서 무엇을 셀 때 쓰이는 말을 《단위》라고 합니다.

키잡이— 키를 가지고 배가 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사람.

키— 배의 운동방향을 조절하는 긴 막대기같이 생긴 도구.

❖ 다음단어들을 보면서 《**외딴**》의 뜻을 알아보자요.

외(오직 하나뿐인): 외나무다리, 외눈깔, 외아들

딴(서로 관계가 없이 다른): 딴장난, 딴곳, 딴마음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과는 모두 몇개의 글차례로 되여있습니까?

❖ 기본내용— 빗바람에 배를 잃고 섬에 올랐던 배사공들이 서로의 힘을 합쳐 끝내 자기들의 집이 있는 뭍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가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섬에 처음 올랐을 때 배사공들의 심정을 3개 문장이상으로 말해보세요.

❖ 섬에 오른 배사공들이 집으로 돌아가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체계를 잡아 말해보세요.

❖ 사공들은 왜 저마다 키를 자기가 요구하는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까? 그 말들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있습니까?

❖ 학생은 이 과를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문장들을 일어난 차례에 따라 순서를 바로 정하고 그 내용을 보충하여 이야기글을 지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속담을 꼭 넣어서 재미있게 꾸며보세요.

- 우리는 룡악산으로 등산을 갔다.
- 드디여 매봉에 오르니 구름이 손에 잡힐듯 하였다.
- 얼마쯤 오르다가 산중턱에서 중간휴식을 하였다. 여기서 의견이 맞지 않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좀 지체되였다.
- 산으로 오르는 길은 힘들고 어려웠으나 모두가 힘과 용기를 내여 걷고 또 걸었다.

• 대봉에 오른 우리는 환성을 올렸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속담 《사공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어떤 뜻을 나타냅니까? 본문의 내용과 결부하여 설명해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빗바람, 비바람
3. 다음단어와 반대말들을 찾아보세요.

   동쪽—　　　　　　북동쪽—
   남쪽—　　　　　　남동쪽—
   뚜렷하다—　　　　수평선—
   흩어지다—　　　　뭍—
4. □안에 알맞는 단위를 써넣으세요.

   대포 다섯□　　국수 다섯□　　두부 다섯□
   이불 다섯□　　사탕 다섯□　　잠수함 다섯□
5. 본문에서 한덩어리로 된 말들을 찾고 받아쓰기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어려운 때일수록 제멋대로 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합쳐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동시

제 11 과

욕바가지

백 광 명

발길 채워 데굴굴
예까지 왔나
전승기념관 구석에
철갑모 하나

병사복 입고 뛰다
사로잡힌 놈
사단장 띤놈이
쓰던 바가지

노랑눈알 떼굴떼굴
겁쟁이 띤놈
모자앞의 별 두알은
그 눈깔인듯

우리 나라 함부로
불질하다가
혼쌀난 미국놈
미운 바가지

보는 사람 모두모두
서리발눈길
손가락질 주먹질
그칠새 없네

주인없이 데굴굴
쓸모없나 했더니
세상욕 다 퍼담는
욕바가지됐구나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풍자시를 야유조를 담아서 보통목소리로 잘 읊어보세요.

❖ 본문에서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을 찾아 정확히 한번 쓰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뜻같은말들에 줄을 그으세요.

체포하다	**그치다**	감히
그만두다	**함부로**	생포하다
무턱대고	**사로잡다**	멎다

❖ 다음말들을 보면서 《**발길, 서리발**》의 뜻을 리해하자요.

길: 눈길, 손길, 숨길

서리발: 서리발총창, 서리발장검, 서리발눈길

❖ 뒤붙이의 뜻을 알아보자요. 다음단어에서 《질》은 뒤붙이입니다.

불질— ① 총이나 포 같은것을 쏘는것.

② 싸움을 거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앞붙이와 뒤붙이

앞붙이란 한 단어의 앞에 붙어서 뜻을 보태여주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례: 강추위(강 + 추위) — 아주 심한 추위.

맏아들(맏 + 아들) — 제일 먼저 난 아들.

새노랗다(새 + 노랗다) — 노란색이 진하다는 뜻.

뒤붙이란 한 단어의 뒤에 붙어서 뜻을 보태주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말을 말합니다.

례: 살림군 (살림 + 군) — 살림을 알뜰히 하는 사람.

낚시질 (낚시 + 질) — 낚시로 고기를 잡는 일.

장난꾸러기(장난 + 꾸러기) — 장난이 심한 아이.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시에서는 철갑모를 왜 바가지라고 표현하였습니까?
❖ 이 시의 전반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있습니까?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그림을 보고 동시를 지으세요.
-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 인민군전사들은 뭘합니까?
- 미국놈들의 몰골은 어떠합니까?
- 무엇을 느꼈습니까?
-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 제목을 잘 달고 쓰세요.

곱게 쓰자요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우리는 미국놈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반드시 조국을 통일
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배운 과의 제목들을 제목쓰기요구대로 잘 써보세요.
-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의 지난날을 잊지 말자》를 한번 잘 쓰세요.

제목글은 어떻게 써야 할가요?

▶ 다른 글자보다 조금 큰 글씨로 맨우의 가운데부분에 놓이게 씁니다.

▶ 제목글은 우에 한줄을 내놓고 쓰며 제목글아래에도 한줄사이를 두고 내용글을 씁니다.

▶ 제목이 길어서 두줄로 쓸 때에는 내용에 알맞게 갈라서 쓰되 웃줄보다 아래줄이 짧으면서도 비례가 맞게 써야 합니다. 한 단어를 갈라서 우아래줄에 나누어쓰지 말아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동시를 외워서 글씨쓰기규범대로 한번 곱게 쓰세요.
2. 다음의 속담들을 넣어 이 동시를 이야기글로 고쳐 말해보세요.
   - 작아도 고추알.
   - 길고 짧은것은 대보아야 안다.
   -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3. 본문에서 앞붙이, 뒤붙이가 붙은 단어들을 모두 찾아쓰세요.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데굴굴, 떼굴떼굴
5. 학생은 제일 밉고 나쁜것을 무엇에 비교하여 욕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과의 내용과 결부하여 간단히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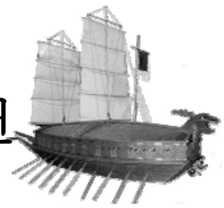
꼭 새겨두자요

언제나 《승리》만을 자랑하며 우쭐대던 미국놈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앞에 무릎을 꿇고말았습니다.

이야기

제 12 과

세계최초의 철갑선—거북선



임진조국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왜놈들은 수많은 배들을 끌고 우리 나라의 바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리순신장군은 거북선을 거느리고 북을 둥둥 울리며 한산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거북선들은 입에서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왜놈들의 배를 향해 맞받아나갔습니다. 마치 안개속에서 큰 룡이 꿈틀거리며 달리는것 같았습니다.

《앗! 조선앞바다에 괴물이 나타났다!》

왜놈들은 거북선을 보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리순신장군은 위엄있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일제히 포문을 열고 대포를 쏴라!》

《쾅! 콰쾅!》



요란한 대포소리와 함께 수십개의 불덩어리들이 한꺼번에 왜놈의 배우에 날아갔습니다.

거북선들은 왜놈들의 배를 따라다니며 포를 쏘고 들이받아 모조리 족쳐버렸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의 꼴은 마치도 상어에게 쫓기는 잔고기신세였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적들의 배는 거의다 불타고 수많은 왜놈들이 물고기밥이 되였습니다.

그후부터 왜놈들은 거북선이 멀리 나타나기만 해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거북선은 왜놈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력사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거북선은 총 길이가 33.9m, 너비가 4.35m, 높이가 2.25m였습니다. 배우에는 두꺼운 판자를 덮고 철판을 씌워 거부기잔등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이라는 배의 이름도 여기로부터 나온것입니다.

거부기의 잔등과 같은 배우에 가로세로의 좁은 길만을 내놓고는 온통 칼과 송곳 같은것을 꽂아 적들이 그우로 기여오를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배안에서는 밖을 내다볼수 있으나 밖에서는 배안을 들여다볼수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2개의 층으로 되여있었습니다. 1층에는 량쪽에 각각 10개씩의 노가 있어 배의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2층에는 갑판의 좌우에 대포구멍이 68개씩이나 있어 배안에서 여러가지 대포를 쏠수 있게 되여있었습니다.

거북선에는 돛도 2개나 있어 보통때에는 그것을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었습니다.

거북선의 앞머리는 룡의 대가리처럼 되여있는데 거기에서는 류황과 염초를 태운 연기를 내뿜으면서 연막을 형성하여 배의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습니다.

거북선은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져 적의 배를 들이받아도 끄덕없었으며 당시의 그 어떤 화살과 포탄도 거북선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과 슬기가 깃든 거북선은 유럽나라들에서 처음 만든 철갑선보다 260여년이나 앞선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됩니다.

일 화

리순신장군(1545—1598)의 최후

쫓겨가는 왜적의 마지막함대를 쳐부시는 싸움이 로량앞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조선수군사령관이 된 리순신장군이 직접 배우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는데 싸움이 승리로 끝날무렵 적탄이 그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숨을 거두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것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가봐 념려되였던것입니다. 이렇게 리순신장군은 최후의 순간까지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리순신장군이 거북선을 이끌고 바다에서 싸우는 부분을 살려읽으세요.

❖ 본문에서 수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정확히 읽고 바르게 쓰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비슷한 말에 줄을 그으세요.

접근하다(가까이 다가가다)	위엄, 위세
위력(매우 크고 강한 힘)	연기, 안개
연막(연기가 쫙 퍼져있는것)	갈팡질팡
허둥지둥(헤덤비는 모양)	바싹 붙다

❖ 함께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뜻을 찾아보자요.

어마어마하게 — 크다 / 말하다

괴물처럼 — 무섭다 / 놀다

자취를 — 감추다 / 밟다

수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 지금의 해군을 가리키는 말.

공군, 륙군은 어떤 군대입니까?

염초— 옛날에 화약을 달리 이르던 말.

내용을 알아내자요

❖ 거북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배입니까?

❖ 리순신장군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 거북선이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라는것을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거북선의 크기와 생김새에 대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말해보세요.

❖ 슬기롭고 용감한 리순신장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똑똑히 듣자요

❖ 력사이야기 《담징의 벽화》

-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에서는 거북선에 대하여 크게 몇가지 체계로 설명하였습니까? 매 체계에 어떤 제목을 달수 있습니까?
2. 마지막에 《선》이 들어가면서 배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쓰세요.
3. 《재능》, 《재간》, 《재주》는 뜻에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있습니다. 같은 점과 차이점을 학습장에 쓰세요.
4. 밑줄 그은 자리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세요.

   ㄱ. 거북선은 총 길이가 ___m이고 너비가 ___m나 됩니다.

   ㄴ. 거북선은 ___개의 층으로 되여있는데 ___층에는 량쪽에 각각 ___개씩의 노가 있었고 ___층에는 갑판의 좌우에 대포구멍이 ___개씩이나 있었습니다.
5. 다음단어들의 반대말들을 찾아쓰세요.

접근하다—	처음—	두꺼운—	대가리—
승리—	앞선—	시꺼먼—	감추다—



꼭 새겨두자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만든 우리 인민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민입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7과 — 12과)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백리향을 왜, 어디로 옮겨키우시였습니까?

   ㄴ. 미국놈의 철갑모가 왜 욕바가지가 되였습니까?

   ㄷ. 배에서 키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ㄹ. 토끼를 잘 기르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행복동이》처럼 《～동이》가 들어간 말을 5개이상 찾고 그중 2개의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3. 풍자란 욕하고 비웃는것을 말합니다. 학생은 미국놈을 풍자하는 또 어떤 시들을 알고있습니까?

   다음의 표에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써보세요.

제 목	간단한 내용

4. 다음단어들에서 나이에 따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골라내세요. 그리고 어떤 나이를 나타내는지 말해보세요.

   젊다, 청년, 늙다, 로인, 아이, 패기, 느리다, 중년, 빠르다, 소년, 어머니, 어리다, 아버지

5. 7과부터 12과까지 매 과에 알맞는 속담 한가지씩 찾아쓰세요. 반복되는것은 피해야 합니다.

6.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처음 만든것은 거북선뿐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두가지 더 찾아보고 언제 만든것인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앞선것인지 말해보세요.

7. 7—12과에서 앞붙이와 뒤붙이가 붙은 말을 각각 5개씩 찾아쓰고 어떤 뜻이 더 보태여졌는가를 말해보세요.

앞붙이—

뒤붙이—

8. 학생은 우리 나라의 어떤 애국명장들을 알고있습니까? 5명 꼽아보면서 간단히 말해보세요.(이름, 시기, 내용)

9. 소설글이란 어떤 글입니까? 학생은 어떤 소설을 읽었습니까?

소설형태와 제목—

간단한 내용—

10. 수수께끼

명희, 옥이, 영실이에게는 남동생이 각각 한명씩 있습니다.

다음글을 보고 누가 누구의 동생인가를 알아맞춰보세요.

▶ 명희는 철수에게 누나가 집에 없는가고 물었다.

▶ 영수와 남수는 집에서 숙제하는 누나에게 철수의 집에 가서 놀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 옥이는 명희네 집에 가다가 동무와 함께 오는 동생을 만났다.

▶ 철수는 누나에게 방금 영수의 누나가 누나를 찾더라고 말했다.

동화

제 13 과

짤룩이는 무엇을 몰랐나



김우경

우산같은 송이버섯들이 자라고있는 파아란 솔밭속에서 부지런한 개미네가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창고지기엄마는 어린 개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언덕너머 앵두밭에 가서 빨간 앵두를 스무알 따오너라.》

그러자 약삭바른 짤룩이는 (뭐 스무알? 그럼 우린 모두 열이니까 두알씩 따오면 되겠구나.) 하고 손벽을 딱 치며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혼자 제꺽 두알을 따오겠어요.》

짤룩이는 얼마전 돌멩이를 들어올리는 력기경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개미들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저 혼자서 제꺽 나르는편이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호, 우리 짤룩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여럿이 함께 일하는것이 더 재미있고 쉽단다.》

《엄마두 참…》

짤룩이는 좀처럼 제 고집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해보렴.》

창고지기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짤룩이는 앵두밭으로 향했습니다.

《짤룩인 왜 혼자 일하길 좋아하니?》

발발이는 짤룩이의 뒤모양을 바라보며 종알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짤룩이는 신나게 노래부르며 멀리로 사라졌습니다.

나는나는 지혜롭고 힘센 짤룩이
앵두 두알 단숨에 날라올테야

대굴대굴 굴려서 날라올테야
랄라랄라 랄라라 날라올테야
…

살살 바위도 넘고 내물도 건너 앵두밭에 이른 짤룩이는 제일 작은 앵두 두알을 골라 땄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두알을 돌돌 굴려갔습니다.

처음엔 신나게 대굴대굴 잘도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힘이 들고 앵두알도 데구루루 데구루루 굴러가다가 나중엔 떡 멎어버렸습니다. 하늘에 닿을듯 쌕쌕 숨을 몰아쉬던 짤룩이는 털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얼마쯤 쉬고난 짤룩이는 낑낑거리며 이젠 한알씩 바위언덕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앵두알은 언덕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말았습니다.

짤룩이는 다시 있는 힘을 다해 올리굴리다가 발을 헛디디여 또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오르고내리고 하다가 앵두알을 끝내 깊은 골짜기에 처박고말았습니다.

《호- 이젠 어떻게 하나…》

짤룩이는 막 울상이 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개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소리와 함께 개미동무들이 커다란 수레에다 서른알도 넘는 앵두를 가득 싣고 오는것이였습니다.

짤룩이는 멍하니 쳐다만 보았습니다.

《짤룩아, 넌 벌써 다 날랐니？》

발발이가 눈을 깜박거리며 물었습니다.

짤룩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던 발발이는 골짜기에 빠진 앵두알을 보고 동무

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짤룩이를 도와주자.》

《그래그래.》

아홉동무는 골짜기로 내려가 짤룩이의 앵두를 냉큼 들어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는 데굴데굴 바위언덕도 넘고 내물을 건느며 씽씽 신나게 굴러갔습니다. 짤룩이는 동무들과 함께 수레를 밀면서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두 세알도 넘게 나르는데 난 왜 한알도 못 날랐을가? 난 힘이 제일 세지 않나…)

동무들과 함께 수레를 밀고온 짤룩이를 보며 창고지기엄마도 기뻐했습니다.

《짤룩아, 동무들과 같이 일하니 얼마나 좋으냐? 힘을 합친다는건 그저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는것이 아니란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백배로도 되고 천배로도 될수 있단다.》

짤룩이는 그제야 뭉친 힘은 하늘땅보다 더 크다는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동화에 나오는 대화를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그들의 성격에 맞게 잘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에서 쓴 글자그대로 읽는 단어, 다르게 읽는 단어를 갈라놓으세요.

파아란, 솔밭속에, 약삭바른, 제꺽, 돌멩이를, 나을것이라고, 쉽단다, 좋아하니, 단숨에, 멎어버렸습니다, 처박고말았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비슷한 말, 반대말들에 줄을 그으세요.

찬찬히	**골짜기**	우둔하다
슬기롭다	**울상**	산언덕
산기슭	**곰곰히**	대충
우거지상	**지혜롭다**	웃는 얼굴

❖ 《**헛디디다, 창고지기**》의 뜻을 리해하자요.

헛(잘못, 보람없이): 헛손질, 헛소문, 헛걸음

지기(지키는 사람): 마당지기, 문지기, 산지기

❖ 문장속에서 《**좀처럼, 종알거리다**》의 뜻을 새겨보자요.

호랑이가 어서 말을 하라고 독촉하였으나 모두들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소만한 곰이 입속으로 무엇이라 중얼거리고 다람쥐가 알지 못할 소리로 **종알거리는것**이였습니다.

❖ 다음의 표현들을 통하여 누구의 어떤 모습이 느껴집니까?

- 고개를 갸웃거리다.
- 하늘에 닿을듯 쌕쌕 숨을 몰아쉬던 짤룩이.
- 머리가 팽팽 돌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짤룩이는 뭉친 힘이 크다는것을 어떻게 알게 되였습니까? 두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과는 무엇을 보여주는 동화입니까?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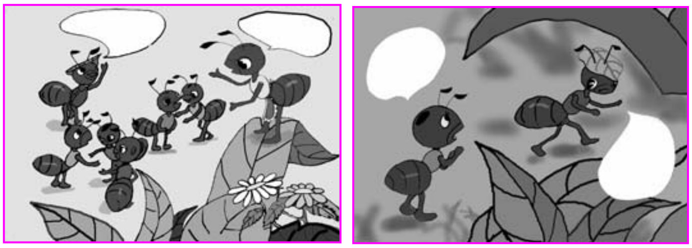
❖ 다음단어들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짤룩이가 혼자서 앵두 두알을 날라오는 모습을 생동하게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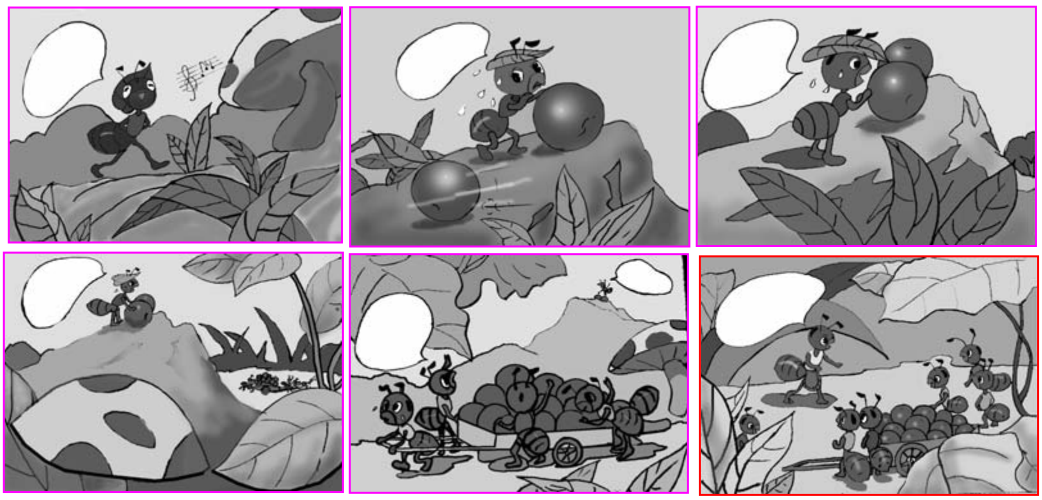
돌돌⇨ 대굴대굴⇨ 데구루루 데구루루⇨ 쌕쌕⇨ 낑낑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동화그림책을 만들어보자요.

먼저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말주머니안에 알맞는 말들을 써넣으세요. 재미있게 쓰면서도 내용이 전달되게 잘 써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다음의 속담에 담겨진 뜻을 말해보자요. 그리고 속담을 넣어 이과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
   - 소경 셋이 모이면 못 보는 편지도 읽는다.
2. 다음의 밑줄에 생동한 표현을 넣어 쓰세요.

   수레는 ___ 바위언덕도 넘고 내물도 건느며 ____ 굴러갔습니다.

   짤룩이는 뭉친 힘이 ________ 더 크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3. 본문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서
   - 소리,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각각 10개씩 찾아쓰세요.
   - 합친모음이 들어간 단어들을 10개이상 찾아쓰세요.

     례: 개미네가
4. 개미와 관련한 다음의 성구, 속담, 표현들의 뜻을 설명하고 각각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 개미가 거동을 하면 비가 온다.
   -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
   - 개미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
   - 개미역사하듯
   - 개미허리같이
   - 개미떼처럼
5. 《종알거리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을 10개이상 찾아쓰세요.

   례 : 투덜대다



꼭 새겨두자요

혼자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여럿의 힘을 당해낼수 없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수 있습니다.

우화

제 14 과

늦어진 인사

김 선 지

일요일 아침
강가에 스케트 타러 가던 철이
공원 저쪽에서 마주오는
체육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였네

（이를 어쩐다？！
인사를 하려면
모자를 벗어야겠는데…
에라, 그냥 스쳐지나자.）
철이 못 본척 강가로 머리 돌리고
빠른 걸음 걸었네

그런데 순간 《지끈—》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네
인사를 피하려던것이
그만 가로수에 머리를 들이받았네

지나가던 체육선생님 뒤돌아서
철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하는 말
《길을 걸을 땐 똑바로 앞을 보아야지
그렇게 머리를 돌리고가니
나무에 머리를 찧을수밖에—》

그제야 철이 얼굴 붉히며
때늦게 모자를 벗어들고
굽석 인사를 하였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연 알게 된 선생님이
웃으며 하는 말
《그만 인사를 피하려던 노릇이
공연히 곱게 생긴 이마에
커다란 혹만 남겼구나！》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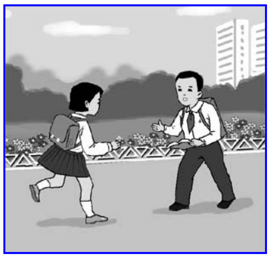
❖ 이 과는 우화입니다. 동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살려읊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고 바로 쓰세요.

일요일, 스케트 타러 가던, 마주 오는, 못 본척, 머리 돌리고, 피하려던것이, 뒤돌아서, 매만지며, 때늦게, 알게 된, 웃으며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단어들의 뜻을 생각하자요.


마주오다


스쳐지나다


가로수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면서 뜻을 알아보자요.

때늦은 〈 후회 / 인사

이마를 / 옷자락을 〉 **매만지다**

공연히 〈 욕하다 / 오가다

굽석— 몸을 크게 한번 푹 숙이는 모양.

내용을 알아내자요

❖ 선생님을 만났을 때 철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리유는 무엇입니까?

❖ 철이는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이 과에서 기본내용을 보여주는 시련은 어느것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다음의 그림에 나오는 인사, 인사말을 보면서 옳은것과 옳지 않은것을 갈라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말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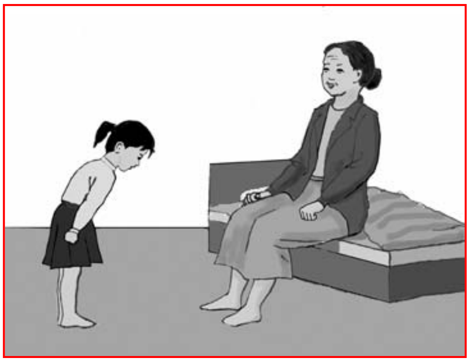
《할아버지, 수고많으십니다.》



《옥이동무, 빠이빠이!》



《엄마, 나 학교에 가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련속그림을 보면서 동화글을 지어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철이의 늦어진 인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두가지로 찾아보고 알맞는 속담을 넣어 말해보세요.
2. 본문을 외워읊고 동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해보세요.
3. 다음단어들의 반대말을 찾고 두 단어를 한문장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때늦다, 피하다
4. 철이가 제때에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더라면 그뒤에 어떻게 되였을가요?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5. 이 과를 배우고 학생의 지난 기간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철이처럼 행동한적이 있는지요? 자기의 행동과 앞으로의 결의를 알맞는 속담과 결부하여 5개 문장으로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인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례의도덕의 하나입니다.

단편소설

제 15 과

아 버 지

박 춘 삼

전쟁이 끝난 뒤 첫 체육대회날입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이 떠나갈듯 환성을 올립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쿵챙쿵챙 쟁반같은 제금이 해빛에 번쩍입니다.

운동장둘레에 겹겹으로 울타리를 친 학부형들도 손벽을 치면서 응원합니다.

《다음은 사람찾기경기입니다.》

나팔주둥이같은 고성기에서 짜랑짜랑 울리는 꼬마방송원의 목소리입니다.

경기에 나가는 덕님이의 가슴은 쿵쿵 방아를 찧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정문쪽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세! 만세!…》

운동장으로 나가던 덕님은 아이들과 함께 정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드시며 운동장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덕님이를 만나보시려고 친히 학교를 찾아주신것입니다.

끝없이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경애하는 대원수님앞으로 달려간 덕님은 소년단인사를 올렸습니다.

《오, 우리 덕님이로구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를 대뜸 알아보시였습니다.

《퍽 컸구나… 그래, 다리는 다 나았느냐? 어디 좀 보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손수 덕님이의 무릎을 만져보시였습니다.

《덕님이가 오늘 사람찾기경기에 나갑니다.》

교장선생님이 정중히 말씀올렸습니다.

《저런, 선수로 나간단 말이지?! 됐다, 됐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슴에 서렸던 근심이 한꺼번에 풀리신듯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덕님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전쟁이 가렬하던 지난해 어느날이였습니다.

미제원쑤놈들이 던진 폭탄에 다리를 상한 덕님이는 누나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으로 나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고개길을 오르는 누나의 곁에 차를 멈춰세우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누나의 곁으로 다가오시여 어데로 가는 길이냐고 물으시였습니다.

누나는 사실대로 말씀올렸습니다.

《다리를 다쳤단 말이지?!》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른 덕님이의 이마를 손수 짚어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집엔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닌 소짐바리에 포탄을 싣고 떠난지 사흘이 됩니다.》

《아버진?》

《아버진 락동강전투에서…》

누나는 그만 말끝을 맺지 못한채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면 못 쓴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를 받아안으시고 승용차에 오르시였습니다.

《병원으로 갑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를 병원까지 태워다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애의 다리를 꼭 고쳐줍시다. 이것도 미국놈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은 전선길이 바빠서 그냥 가는데 앞으로 꼭 이 애네 집에 한번 들리겠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멀리 포성이 울려오는 전선으로 떠나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덕님이를 찾아주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석단에 모신 체육대회는 더욱 흥성거렸습니다. 세차게 펄럭이는 오색기발들, 앞산에 부딪쳐 《와―와―》 메아리가 되여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환호소리, 기쁨과 감격의 물결은 아이들의 가슴가슴에서 쇠물처럼 끓어번집니다.

이윽고 흰 띠를 늘여놓은듯 한 출발선에 꼬마선수들이 나섰습니다.

덕님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주석단에 앉아계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덕님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이며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땅!》 신호총이 울렸습니다.

덕님이는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맨앞에서 달리는 덕님이를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저것 보오! 1등으로 달리는게 우리 덕님이요. 얼마나 장하오. 미제원쑤놈들은 저 애가 일생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했소. 그러나 저 소년은 다시 일어나 저렇게 뛰고있소! 미국놈들이 저 나어린 조선소년앞에 꺼꾸러진셈이요.》

맨 선참으로 달려가 주런이 놓인 봉투를 덥석 잡은 덕님이는 앞으로 서너걸음 나가면서 속종이를 뽑아 읽었습니다.

(아버지?)

순간 덕님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말았습니다. 어느새 뒤따라온 동무들이 벌써《작업반장아저씨!》,《어머니, 어머니, 빨리 나와요, 빨리요－》 하고 부산을 피우며 돌아쳤습니다.

그런데 덕님이만은 운동장 한가운데 얼어붙은듯 서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달릴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덕님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덕님이는 피나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종이쪽지를 쥔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울고싶도록 안타까왔습니다. 덕님이는 그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덕님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걱정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다음순간 덕님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울상이 되였던 그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여올랐습니다.

(아니야,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



주석단을 향해 달리던 덕님이는 《아버지!》 하고 불렀으나 목이 꽉 메여 소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주석단앞에 다달은 덕님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모든것을 알아차리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앞으로 걸어나오시였습니다.

《아버지!》

덕님이는 목메여 웨치며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습니다.

해님도 가던 길을 멈추고 행복에 겨워 들먹이는 덕님이의 모습을 밝게 비쳐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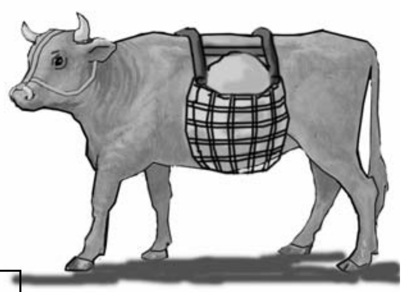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보기읽기를 새겨보면서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오게 보통속도로 감정을 잡아 잘 읽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어보자요.

고개길, 기발을, 체육대회날, 한가운데, 굽히시고, 가렬하던, 말끝을, 울상이 되였던, 속종이를, 맨앞에서, 펄럭이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소짐바리— 바줄이나 끈 같은것으로 매서 소의 등에 짐을 올려실은것.

소의 잔등 량쪽에 갈라 싣습니다.

오색기발— 다섯가지 색갈의 기발.

빨간색				

❖ 괄호안의 뜻을 보고 비슷한 말에 줄을 그으세요.

쏜살같이(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소란
부산(급하게 서둘러 떠들썩하게 구는것)	치렬하다
가렬하다(싸움 같은것이 몹시 세차다)	번개같이

❖ 함께 쓰이는 말에 이어 그뒤의 말을 련결해보세요.

자애로운	어 버 이	우리 장군님
흥성이는	우리 학교	
만족한	웃음짓는	
메아리되여	울려퍼지는	

❖ 다음 감정표현들의 뜻을 짧은글을 보면서 리해하자요.

- 경기장에 나선 나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리였습니다.**
- 나는 흥분된 가슴을 **달래며** 침착하게 신호총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 미제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가슴에 서린**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 누나는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는 동생을 꼭 껴안아주었습니다.

❖ 다음표의 내용에 맞는 생동한 표현들을 찾아 써넣으세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였을 때	
사람찾기경기에 덕님이가 나가게 되였을 때	
덕님이가 《아버지》라는 속종이의 글을 보았을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러러볼 때	

생동한 표현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금방 눈앞에 살아움직이듯이 나타내는 말을 말합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이야기는 언제 어느때 있은 이야기입니까?

❖ 전쟁이 가렬하던 어느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와 누나에게 어떤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까?

❖ 덕님이는 어떻게 웨칩니까? 덕님이의 웨침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덕님이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였습니까?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수 있습니까?

❖ 덕님이가 사람찾기경기에 나가《아버지》라는 표쪽지를 보았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이 어떠했을가요? 그 심정을 생동하게 말해보세요.

❖ 덕님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품에 와락 안길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가요? 자기가 그때 운동장에 있다고 상상해보면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분단벽보를 발간합니다.

- 조를 나누어 매 칸의 벽보내용을 토론하여 잘 써보세요.
- 본문에 나오는 어휘표현들을 매 칸에 5개이상되게 쓰세요.
- 다 쓴 다음 벽보내용을 잘 다듬으세요.

글다듬기란 쓴 글의 부족점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훌륭한 글이 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글을 다듬을 때는 낮은 소리로 읽으면서 고치는것이 좋습니다. 글의 내용은 보여주자는것이 명백하게 다듬어야 하며 표현은 정확하고 생동한 말들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덕님이의 아버지는 락동강전투에서 희생되였습니다. 그러나 덕님이는 (아니야,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 하고 생각합니다. 덕님이의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있을가요? 깊이 생각해보고 말해보세요.

2. 사람찾기경기에 나가서 속종이를 뽑아 읽는 덕님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다음의 부분별로 써보세요.

   몸, 입술, 손, 고개, 마음

3. 다음문장들에서 틀린 문장부호를 찾아 고쳐보세요.

   ㄱ. (다음은 사람찾기경기입니다.)

   ㄴ. 《아니야, 나에겐 아버지가 계셔?!》

   ㄷ. 《아버진 락동강전투에서!》

4.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친부모와 같은 사랑은 끝없이 많습니다. 그 많고많은 사랑중에서 한가지 내용을 선택하여 감동깊게 말해보세요.

5. 다음단어들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하고 짧은글을 각각 지으세요.

   ㄱ. 울렁이다, 두근거리다, 들먹이다

   ㄴ. 손수, 몸소, 친히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그들의 마음속그늘을 가셔주시였습니다.

이야기

제 16 과

아들자랑하려다가 망신당한 부자

(이 작품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있은 일입니다.

이 마을의 한 집에서 어느날 잔치를 하였습니다.

잔치집에서는 마을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잔치집에 가게 된 부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에 제 아들자랑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금, 은, 보석으로 장식한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잔치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잘 생긴데다가 옷까지 잘 입혔으니 보는 사람마다 입을 딱 벌리며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참 기뻤습니다.

얼마후 음식상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음식상에 둘러앉은 마을사람들은 상이 다 차려지자 좌상할아버지가 수저를 먼저 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아들은 헤덤비며 제일먼저 저가락을 들더니 찰떡한개를 닁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바람에 흘러내린 팥보숭이가 김치그릇과 콩나물접시에 떨어졌습니다.

곁에서 이것을 본 부자는 아들의 팔굽을 슬그머니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도 달라는것으로 생각하고 찰떡 한개를 더 집어다가 자기 아버지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어이없어하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적마다 늘 저먼저 맛있는것을 골라먹는데 버릇된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어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부자아들이 하는 꼴을 맞갖지 않게 보고있던 곁의 소년이 성큼 일어서더니 좌상할아버지에게 수저를 쥐여드리며 《할아버지, 어서 드십시오.》하면서 앞에 놓은 잔에 술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좌상할아버지는 한손으로 수염을 내리쓸며 《오냐, 용쿠나. 자, 어서들 들자구.》 하면서 첫잔을 내는것이였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서로 술을 권하면서 음식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의 아들은 그러거나말거나 계속 저 혼자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었고 나중에는 배부르고 덥다고 웃옷까지 훌훌 벗었습니다.



음식상에 먼지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모두들 부자의 아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부자에게 《자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변변치 못해 안됐구만.》 하고 놀려댔습니다.

아들자랑하러 왔다가 바보아들을 구경시킨셈이 된 부자는 더는 앉아있을수 없어 아들을 끌고 도망치듯 잔치집을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비단보자기에 개똥이라더니 저 부자놈이 매일 자랑하던 아들이 저런 바보였구만.》하고 큰소리로 웃어주었습니다.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내가 돈만 생각하고 아들교양을 하지 못했구나. 례절을 모르니 바보가 될수밖에…》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찾아 정확히 발음해보세요.

❖ 다음표의 빈칸에 내용을 써놓고 그 부분을 찾아 읽어보세요.

내 용	속도	감정	말소리 빛갈
부자아들이 칭찬받는 부분			
버릇없이 행동하는 부분			
마을사람들이 례절있게 행동하는 부분			
부자가 한탄하는 부분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어울리는 말에 줄을 긋고 뜻을 말해보세요.

수저(숟가락과 저가락)를　　　　잡아당기다

팔굽(팔꿈치)을　　　　놀다

바보(어리석게 노는 사람)처럼　　　　들다

❖ 뜻같은 말에 줄을 긋고 [ ]안에 반대말을 써넣으세요.

기막히다	**헤덤비다**	[ ]
마음에 안 든다	**어이없다**	[ ]
급하다	**변변치 못하다**	[ ]
온전치 않다	**맞갖지 않다**	[ ]

❖ [ ]안에 무엇이 빨리 움직이는가를 쓰고 행동으로 해보세요.

넝큼 집어들다— [ ]으로 드는것.

성큼 일어서다— [ ]가 움직이는것.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뜻을 새겨보자요.

생일에 / 들놀이에 〉 **청하다**

음식을 / 자리를 〉 **권하다**

❖ 본문에 맞는 뜻을 찾아보세요.

꼴— ①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 상태./ 학생꼴이 잡히다.
② 처한 상태를 낮추어 이르는 말./ 꼴이 흉하다.
③ 말이나 소와 같은 집짐승에게 먹이는 풀./ 꼴을 베다.
④ 축구경기에서의 득점./ 꼴을 넣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잔치집에서 부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런데 음식상이 다 차려지자 부자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 부자는 왜 망신을 당하게 되였을가요?
부자가 하는 마지막말을 놓고 찾아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학생은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차례를 따라가며 말해보세요.

- 음식상이 들어올 때
- 음식을 먹을 때
- 다 차려놓았을 때
- 다 먹고났을 때

❖ 례절을 모르면 왜 바보가 될가요?
부자아들의 행동을 놓고 학생이 생각되는 점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내용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글을 지어보세요.

-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식사할 때 있었던 일
- 집에서 손님과 함께 식사할 때 있었던 일
- 들놀이나 관찰을 가서 식사할 때 있었던 일
- 동무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있었던 일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의 내용을 어린 동생들에게 들려주듯이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보자요. 소년의 말, 할아버지의 말, 동네사람의 말, 부자의 말을 실지처럼 잘 형상하면서 짧으면서도 내용이 다 들어가게 말해야 합니다.
2. 식사례절은 동무들끼리도 잘 지켜야 합니다. 동무생일에 초청되여가서 식사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아래에 간단히 쓰세요.

   생일을 맞는 동무에게—

   찾아온 동무들에게—

   동무의 부모에게—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3개의 단어가 다 들어가면서 하나의 내용으로 되게 그리고 4개 문장이 되게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헤덤비다, 어이없다, 청하다
4. 이 과에서는 어떤 속담이 나옵니까? 그와 뜻이 비슷한 속담을 1～2개 더 찾아보세요.
5. 《걸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과 결심을 이 말과 결부하여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사람의 인품은 값진 옷이나 잘 생긴 얼굴에서가 아니라 례절있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동시

제 17 과
조 선 소 년

김 명 익

김일성광장주석단에
아버지장군님 오르셔요
나는 달리여가
조선소년의 영예인
붉은넥타이 매여드려요

장군님은 어여쁘다
나의 뺨 쓸어만져주시고
손을 크게 펴시며
작은 나의 손 굳게 잡아주셔요



나는야 이 땅의 10살 소년
온 세상을 거느리신
장군님의 그 손
내가내가 잡아보아요

아, 우러르니 눈부신 해님
굽어보니 지구가
이 10살 조선소년-
나의 발아래에 굴러가는듯

나는 웨쳐요
온 세계야
너는 우리의것이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감정을 살리면서 한련씩 이어읽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한번 쓰세요.
광장, 붉은넥타이, 어여쁘다, 달리여가, 쓸어만져주시고, 굳게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광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할수 있게 거리에 넓게 만들어놓은 곳.
학생이 살고있는 곳에 있는 광장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석단— 대회나 회의 같은데서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 문장속에서 뜻을 리해하자요.
우리 학급은 모두가 최우등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 뜻같은말들을 찾아쓰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어여쁘다— 예쁘다, [ ], [ ], [ ]

눈부시다— 찬란하다, [ ], [ ], [ ]

굽어보다— 아래를 보다, [ ], [ ], [ ]

거느리다— 데리고있다, [ ], [ ], [ ]

내용을 알아내자요

❖ 동시를 읊어보면서 련별내용을 찾아보자요.

-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 10살 소년 《나》의 마음은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 《나》는 무엇을 웨칩니까?
- 4련에 담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여 《나》— 조선소년은 거대한 지구가 발아래에 굴러가는듯 하다고 하였을가요?

❖ 련별내용을 하나로 묶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동시를 이야기글로 고쳐서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이 학생은 세상에 대고 무엇을 웨치고싶어합니까? 그 웨침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있습니까? 5~6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똑똑히 듣자요

❖《지구는 쉬지 않고 돈다》

- 어떤 차례로 되여있습니까?
- 왜 이런 내용을 말합니까?
-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동시 《조선소년》을 외우고 감정을 살려 읊어보세요.
2. 누구나 처음에 붉은넥타이를 매고 소년단에 입단하던 때의 감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되새겨보면서 3~4개 련으로 된 동시를 지어보자요. (아래학년 학생들이 소년단입단할 때 축하해주던 감정을 써도 좋습니다.)
3. 《영예》와 비슷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함께 넣어 2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어보세요.
4. 이 동시를 배우고 학생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느낌과 함께 학생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해보세요.
5. 본문을 동시쓰기규범에 맞게 한번 곱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 조선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몸가까이 뵈옵던 때를 제일 가슴벅차고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있습니다.

해설글

제 18 과

인공지구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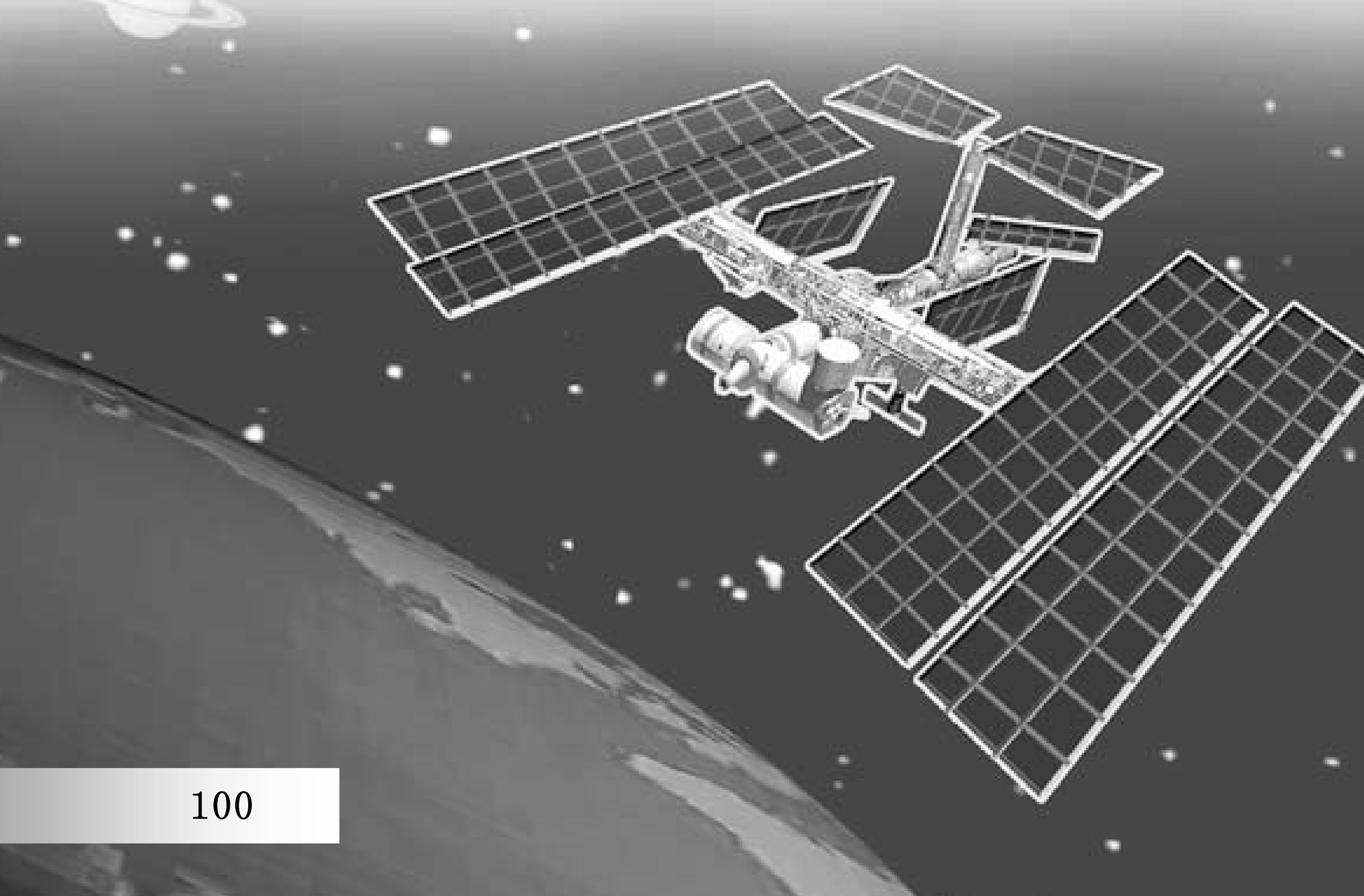
누구든 별이 웃는 밤하늘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별의 바다를 자유로이 헤염치며 미끄러져가는 작은 별도 볼수가 있을거예요.

그 별이 바로 인공지구위성이랍니다.

이 위성은 수억만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할아버지별들보다 비할바없이 어려도 사람들을 위하여 굉장히 유익하고 큰일을 하는 보배별이예요.

아직은 불과 몇몇 나라에서만 쏴올린다는 이 신비로운 별들중에는 조선의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도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슬기로운 청년과학자선생님들이 단 한번의 발사로 우주에 성공적으로 쏴올린 위성이랍니다.

밤이면 인공지구위성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되여 별처럼 반짝입니다.



인공지구위성중에는 성미가 느려 느릿느릿 움직이는것도 있고 꼼짝하지 않고 멎어있는것처럼 보이는것도 있으며 또 우리와 숨박곡질을 하며 잘 보이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구위성이 어떻게 우주에 날아오르는가를 좀 봅시다.

인공지구위성은 우주발사대에서 운반로케트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우주공간의 일정한 위치에 위성이 도착하면 운반로케트는 저절로 분해되여 지구에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쪼각들은 공기와 쓸리면서 불타버립니다.

이렇게 되여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해의 주위를 따라돌듯 이 아기별도 위성이 되여 지구주위를 따라돕니다.

인공지구위성은 일정한 자리길을 따라 지구의 주위를 돌아갑니다.

인공지구위성들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인공위성에는 기상위성, 통신위성, 지하탐사위성, 정찰위성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상위성은 지구의 날씨를 비롯하여 지진, 해일, 태풍 등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제꺽 알아내여 미리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통신위성을 통하여 우리는 텔레비죤을 보고 전화도 하며 방송도 듣게 됩니다.

가령 한 나라에서 재미나는 축구경기를 한다면 이 위성을 통하여 지구의 어느곳에서나 동시에 텔레비죤으로 관람할수 있습니다.

인공지구위성은 사람들이 무선전화기로 련계하면 그들이 서있는 위치와 높이, 시간도 알려줍니다.

지하탐사위성은 지구에 있는 유용한 광물, 원유 등을 알아내는 일을 하며 정찰위성은 군사적목적에 리용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인공지구위성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보배동이랍니다.

학생동무들은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 앞으로 우리의 청년과학자선생님들처럼 저 하늘에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을 더 많이 쐭올려야 합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누구든 별이 웃는…》부터 《…볼수가 있을거예요.》까지 끊기, 높낮이, 힘주기표식을 하고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고 써보세요.

성공적으로, 비할바없이, 꼼짝하지 않고, 굉장히, 관람할수, 높이 쌓아, 쐭올려야, 분해되여, 쓸리면서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인공지구위성—인공+지구+위성

인공— 저절로 생겨난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것.

지구— 사람이 살고있는 땅덩어리, 태양의 주위를 돌고있는 천체.

위성— 지구의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고있는 천체.

❖ 뜻같은말에 줄을 그으세요.

느릿느릿	성격
가령	우물우물
성미	갈라지다
분해되다	만일

❖ 다음의 □안에 《익》 또는 《용》을 써넣으세요.

유□**하다**— 리롭거나 도움으로 될만 하다.

유□**하다**— 쓸모가 있다.

❖ 밑줄에 어울리는 말을 써넣으세요.

비할바없이(비교해볼 필요도 없이)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쓸리다**(서로 닿아 비벼지다)

______________ **발사**(총, 대포, 로케트 같은것을 쏘는것)

❖ 다음문장을 보면서 《**신비롭다**》의 뜻을 새겨보자요.

나의 희망은 신비로운 우주의 세계를 정복하는것입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무엇에 대하여 해설한 글입니까?

❖ 몇개 체계로 되여있습니까?

❖ 본문의 기본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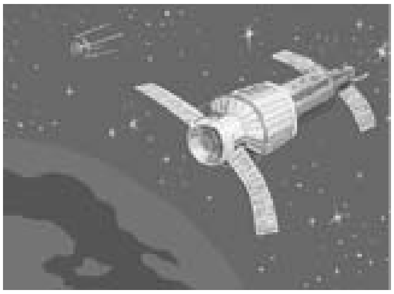
❖ 다음의 그림을 보면서 옆동무와 자기의 생각을 토론해보세요. 다른 동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 달에 대하여 알아보자요. 달은 어떤 위성일가요?

나의 생각_________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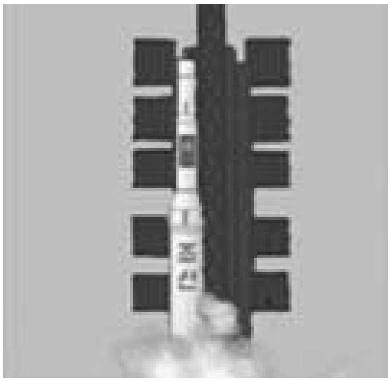
동무의 생각______________



▶ 인공지구위성이란 무엇일가요? 왜 필요할가요?

나의 생각______________

동무의 생각______________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인공지구위성들을 쏴올렸습니까? 왜 우리의 자랑으로 될가요?

나의 생각 ____________________

동무의 생각 ____________________

❖ 인공지구위성은 우주비행사가 없지만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따라가며 일을 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서로 토론하여보고 차근차근 알기 쉽게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글의 체계세우기와 내용쓰기

글의 체계는 머리글, 기본이야기, 맺는글의 차례로 세웁니다.

❖ 머리글— 글의 시작을 떼는 부분. 누구에 대해, 어떤 사실인가를 대체적으로 알게 써야 합니다.

❖ 기본이야기— 글의 기본내용을 펼쳐나가는 부분. 이야기가 벌어지는 순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면서도 재미있게 써야 합니다. 이야기를 절대로 이것저것 벌려놓지 말고 중심사상이 똑똑히 나타나게 써야 합니다.

❖ 맺는글— 글을 끝내는 부분.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도 간단히 써야 합니다.

❖ 《〈광명성3〉호와 나》라는 제목으로 1페지정도 되게 글을 써보세요. 자기 취미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달아도 됩니다.

- 어떤 역할을 하는 위성을 계획합니까?
- 그러자면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 그 위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 대체로 언제까지 실현하려고 합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인공지구위성이 하늘로 떠오르는 과정을 쓰고 말해보세요.
2. 《신비롭다》처럼 《～롭다》가 들어간 단어들을 5개 찾아쓰세요.
3. 우주비행선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오세요. 그리고 인공지구위성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보세요.
4. 《가령 …한다면》을 넣어 우주정복의 내용이 들어가게 3개 문장의 짧은글을 지으세요.
5. 《인공》이 들어간 단어들을 5개 찾아쓰고 설명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신기한 별—인공지구위성은 밤하늘의 별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3과 — 18과)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덕님이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몇개 부분으로 가를수 있습니까?

ㄴ. 조선소년의 긍지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ㄷ. 짤룩이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ㄹ. 철이는 인사를 안하려다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2. 문장부호 《?!》는 어떤 때 쓰는 부호인가를 말하세요.
15과에서 이런 문장부호가 들어간 문장들을 찾고 설명해보세요.

3.《젓다》의 뒤에 다음의 토들이 올 때 어떻게 써야 할가요?

□으면, □지, □을수, □으라, □거라

이렇게 뒤에 오는 토에 따라 쓰기가 달라지는 단어를 5개 찾아쓰세요.

4.《례절밝은 동무》라는 제목으로 자기 동무들가운데서 제일 례절이 밝은 동무에 대하여 5개 문장으로 된 글을 지으세요.

5. 자연위성과 인공지구위성의 차이점에 대하여 쓰세요.

6. 다음단어들에서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에 밑줄을 치고 몇개인가를 말해보세요.

네사람, 서너개, 새 교복, 사과값, 한마리, 다섯고뿌, 칠골동, 무용수, 사슴들, 삼천리, 사각함, 두벌, 이중창, 셈세기, 오각별, 첫번째, 이틀째, 네거리

7. 다음단어들은 뜻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짧은글을 지어 나타내세요.

잃다	작다	헤여지다	사연
잊다	적다	해여지다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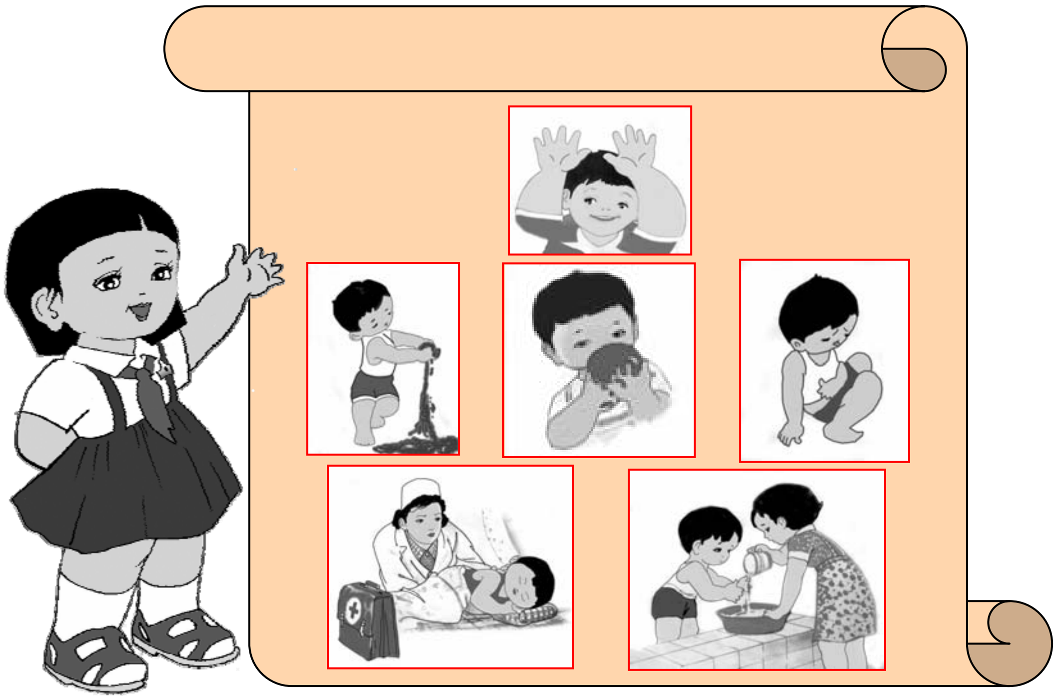
8. 다음의 단어들에서 뜻이 같지 않은 말에 밑줄을 친 다음 그 리유를 설명하세요.

- 늘, 항상, 언제나, 때때로
- 바르다, 정확하다, 옳바르다, 맞다
- 오히려, 도리여, 아주, 되려
- 아롱지다, 아름답다, 곱다, 아릿답다, 예쁘다

9. 수수께끼

염소네 네 형제의 둘째가 동생들에게 《형님 집에 왔음》하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셋째는 첫째형을 만나보겠다고 둘째형네 집으로 가고 넷째는 둘째형을 만나보겠다고 첫째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꼭같은 전보를 받고 셋째와 넷째는 왜 서로 다른 집으로 갔을가요? 그리고 전보에는 무슨 잘못이 있을가요?

10. 한 녀학생이 어린이들앞에서 손을 잘 씻자는 내용의 해설을 하고있습니다. 그 녀학생의 위치에 서서 걸그림을 보며 해설하는 글을 간단히 알기 쉽게 써보자요.



감상문

제 19 과

일자리를 얻고저

나는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을 보여주는 한장의 그림앞에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한창나이에 책가방 아닌 무거운 돌을 들고 교실이 아닌 광산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험을 치는 우리또래의 소년!

원한에 찬 지난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소년의 불쌍한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주고있습니까.

소년은 지금 이를 악물고 일제자본가놈앞에서 커다란 돌을 가까스로 들어올리고있습니다. 얼굴에서는 비지땀이 흘러내리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부모도,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는 소년입니다. 남은것은 다만 어린 동생 하나뿐입니다.



소년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 동생의 손목을 끌고 광산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돌을 들지 못하면 일자리를 얻을수 없기에 소년은 죽을 힘을 다해 돌을 들어올립니다. 해볕에 탄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지고 팽팽하게 불어난 힘살은 금시라도 터질것만 같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조입니다.

(오빠가 합격되지 못하면 어쩌나…)

근심에 싸인 그의 두눈에는 가랑가랑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제자본가놈은 보기와는 다르게 돌을 버쩍 들어올리는 소년을 검은 안경테너머로 넌지시 건너다보며 속으로 주산알을 튕깁니다.

(음, 괜찮아. 힘을 꽤 쓰는걸 보니 돈을 적게 주고도 어른처럼 부려먹을수 있겠는걸…)

자본가놈은 공짜말이 하나 굴러왔다는 생각에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습니다.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나라없던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이렇게 마소처럼 자본가놈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돌을 들고있는 소년은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누리는 행복의 무게를 깨우쳐주며 그 행복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해주고있습니다.

우리들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없었더라면 이 소년처럼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당하며 공사판을 헤매야 했을것입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품속에서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의 지난날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그림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나》의 심정을 담은 내용은 절절하고 열정적으로 읽어보세요.

❖ 밑줄친 글자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바르게 한번 쓰세요.

쇠돌을, 일자리를, 돌봐줄, 괜찮아, 압박받던, 악물고, 얻을수, 가까스로, 불어난, 해볕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중에서 알맞는것을 □에 써넣으세요.

선뜻, 또래, 가까스로, 이그러지다, 금시, 마소

□— 이제 막　　　□— 인차

□— 겨우　　　□— 비슷한 나이

□— 말과 소　　　□— 찌그러지다

❖ 《치》의 뜻을 알아보자요.

- 치솔, 치약, 치담에서 《치》는 무슨 뜻일가요?
- 《치가 떨리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일가요?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팽팽하게 〈 불어나다 / 당기다

느슨하게 〈 풀어놓다 / 미소짓다

❖ □안에 알맞는 말을 써넣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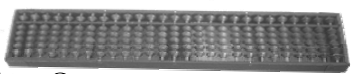
광산— 땅속에서 □을 캐내는 곳.

탄광— 땅속에서 □을 캐내는 곳.

비지땀— 몹시 힘든 일을 할 때 흘러내리는 땀.

땀과 관련한 말— □, □, □

주산— 계산할 때 쓰는 도구의 한가지.



《속으로 주산알을 튕기다》는 무슨 뜻일가요?

공사판— 탄광, 광산, 철길, 건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곳.

《공사판을 헤매다》는 어떤 뜻을 나타냅니까?

내용을 알아내자요

❖ 누가 어디로 왜 왔습니까?

❖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묶어보세요.

이 그림은 [   ]소년이 [   ] 위하여 [   ]에서 돌을 들며 [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일자리를 얻으려고 무거운 돌을 드는 시험을 치고있는 소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요?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교활하고 악착한 자본가놈의 몰골을 말해보세요.

❖ 뒤에 서있는 광산로동자들의 시점에서 본 소년의 모습과 불쌍한 동생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 이 본문을 배우고 느낀 점과 결의를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다음의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추운 겨울날 물을 긷던 머슴소녀가 물동이를 깨뜨려 지주놈에게 매를 맞고있습니다. 불쌍한 소녀와 악독한 지주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그림감상문을 감동깊게 써보세요.



감상문이란 책이나 영화,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감상문은 보고 들으면서 자기가 가장 뜨겁게 느끼고 큰 충격을 받은것에 중심을 두고 씁니다.

감상문은 소박하고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속담과 결부하여 이 과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2. 다음제목을 본문의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바꾸어보세요.

   《공부를 하자고》—

   《먹을것을 얻으려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힘이 들 때를 나타내는 생동한 표현을 5개이상 찾아쓰고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해보세요.
4.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4개 단어가 다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천대, 멸시, 착취, 압박
5. 학생이 가장 인상깊게 본 영화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페지가 넘지 않게 감상문을 써보세요. 영화의 기본내용과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 학생이 느낀 점들을 간단하면서도 감동깊게 쓰세요.



꼭 새겨두자요

해방되기 전에는 나라가 없었던탓에 학교에 가야 할 어린 소년들이 공장이나 광산, 건설장에서 힘든 로동을 하였습니다.

해설글

제 20 과

룡 문 대 굴

무더운 여름날도 녹지 않는 고드름이 있다면 동무들은 아마 깜짝 놀랄거예요.

하지만 우리 나라의 지하금강으로 불리우는 룡문대굴에는 정말로 녹지 않는 돌고드름이 주룽주룽 많이도 매달려있답니다.

선군시대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찾아낸 룡문대굴은 평안북도 구장군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룡문대굴은 굴의 총연장길이가 15리나 되는데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합니다.

룡문대굴에서 제일먼저 가닿는 곳이 《만물동》입니다.

돌고드름과 돌순이 만가지 모양을 이루고있다 하여 《만물동》이라고 부릅니다.

만물동에서 눈길을 끄는것은《풍년탑》입니다. 이 탑의 높이는 6m이고 둘레는 5m쯤 되는데 그 앞뒤면과 옆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흥미를 끄는것은 작은 돌고드름을 막대기로 가만히 때리면 피아노소리같이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것입니다. 이 돌고드름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있는데 한해에 보통 2～3mm씩 자란다고 합니다.

《만물동》에는 맑은 물이 고인 못도 있습니다.

천정에서 떨어진 석회암 녹은 물이 물속에서 굳어져 수정같이 흰 꽃들을 물속에 피워놓는 《수정못》입니다.

《만물동》을 떠나 좀 더 들어가면 《석화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천정과 벽, 바닥모두가 뾰족뾰족한 작은 돌고드름과 돌꽃들로 뒤덮여있습니다. 돌고드름과 돌꽃들을 손으로 꽉 쥐면 부서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얼음처럼 녹거나 밖에 나오면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석화동》에서 얼마 더 들어가면 《철벽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높이 10m나 되게 돌꽃으로 장식된 철벽의 바람벽이 몇개 층을 이루고있는데 그안에 군함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가 놓여있습니다. 마치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 군함이 이 굴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는것 같습니다.

《철벽동》을 구경하고 저쪽 둔덕에 올라서면 넓은 지하광장에 이릅니다. 이 광장은 시원스럽게 앞이 환히 열려져있을뿐아니라 변두리벽에 《천상굴》, 《백화굴》, 《운흥굴》 등 6개의 깊숙한 가지굴들을 가지고있습니다.

룡문대굴에는 이밖에도 천가지, 만가지 형태를 이룬 아름다운 돌순들과 돌고드름들이 사람들을 황홀한 신비경에로 이끌어갑니다.

룡문대굴은 참으로 우리 조국의 귀중한 보물이며 자랑입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본문을 해설글의 특성에 맞게 읽어보세요.

❖ 본문에는 대화가 아닌데도 옮김표를 친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가요? 리유를 설명하고 정확히 읽으면서 모두 써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지하금강— 지하 + 금강
　　땅속　　　금강산의 줄인말

총연장길이— 토막토막 되여있는것을 모두 연달아 합한 길이.
　《총건평》은 무슨 뜻일가요?

변두리— 일정한 지역이나 물체의 둘레, 테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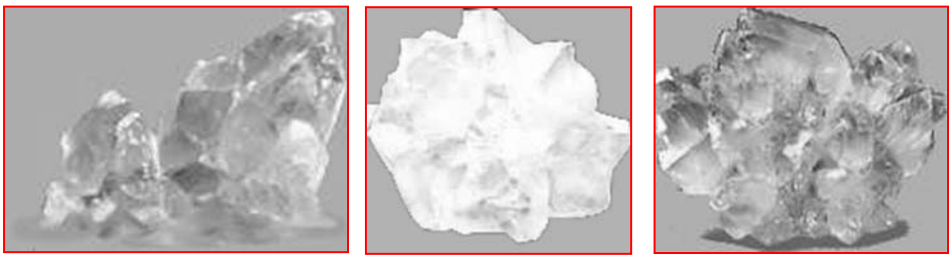
석회암— 사람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쓰이는 흰색의 돌.
　석회석이라고도 합니다. 석회석은 우리가 흔히 쓰는 회가루나 세멘트, 유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로 씁니다.

신비경— 신비 + 경
　　신기하고 묘한것　　경치

돌고드름, 돌순— 돌로 된 고드름, 돌로 된 순(새로 돋아나는 연한 싹)이라는 뜻. 어떻게들 생겼을가요?

만단— 조금도 빠짐없는것.

수정— 맑고 투명한 돌보석.
　보라빛, 누런빛, 검은빛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 본문에 나오는 뜻은 어느것일가요?

고이다— ① 물 같은것이 바닥이나 우묵한 곳에 모이다.
② 입에 침이 모이거나 눈에 눈물이 담기다.
③ 무엇으로 밑을 받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룡문대굴이 어디에 있는지 조선지도를 보면서 찾아보세요.

❖ 룡문대굴의 길이는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학생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이겠는가를 가늠해보세요.

❖ 룡문대굴의 전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룡문대굴의 경치를 다음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해설해보세요.

만물동⇨풍년탑⇨수정못⇨석화동⇨철벽동⇨지하광장

해설을 잘하자면

• 우선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입말로 해야 합니다. 발음은 류창하고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말의 끊기를 바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리해시킬수 있습니다.

• 또한 내용이 명백하면서도 조리있게 하여야 합니다. 순서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늘어지게 하면 안됩니다.

• 해설을 할 때 례절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해설은 대체로 여러 사람을 상대하므로 반말투로 하지 말고《～입니다》,《～습니다》와 같은 높임의 말차림을 써야 합니다.

❖ 학생들이 룡문대굴의 보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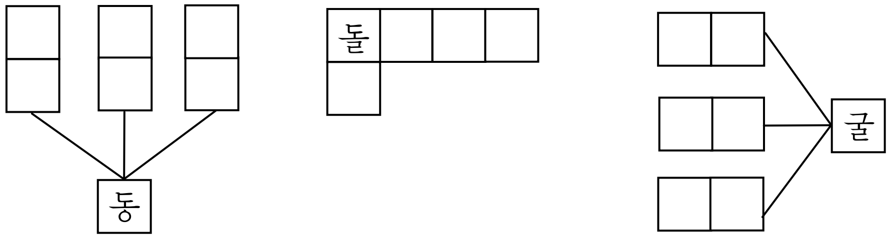
똑똑히 듣자요

❖ 《아름다운 칠보산》

- 무엇에 대하여 들었습니까?
- 어떤 차례로 되여있습니까?
- 무엇을 느꼈습니까?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룡문대굴과 같은 경치아름다운 지하동굴이 우리 나라의 또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보세요.
2. 룡문대굴에 있는 명소들의 이름을 □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3. 《고이다》의 서로 다른 뜻이 다 들어가게 짧은글을 지으세요.
4. 학생의 고장에는 어떤 명승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설글을 5개 문장이 되게 지어보세요.
5. 《금강산도 식후경》과 같이 아름다운 산천경개를 즐기는것과 관련한 속담을 2~3개 찾고 뜻을 설명하세요.



꼭 새겨두자요

천만가지 아름다움을 안고있는 룡문대굴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보물이며 자랑입니다.

가사

제 21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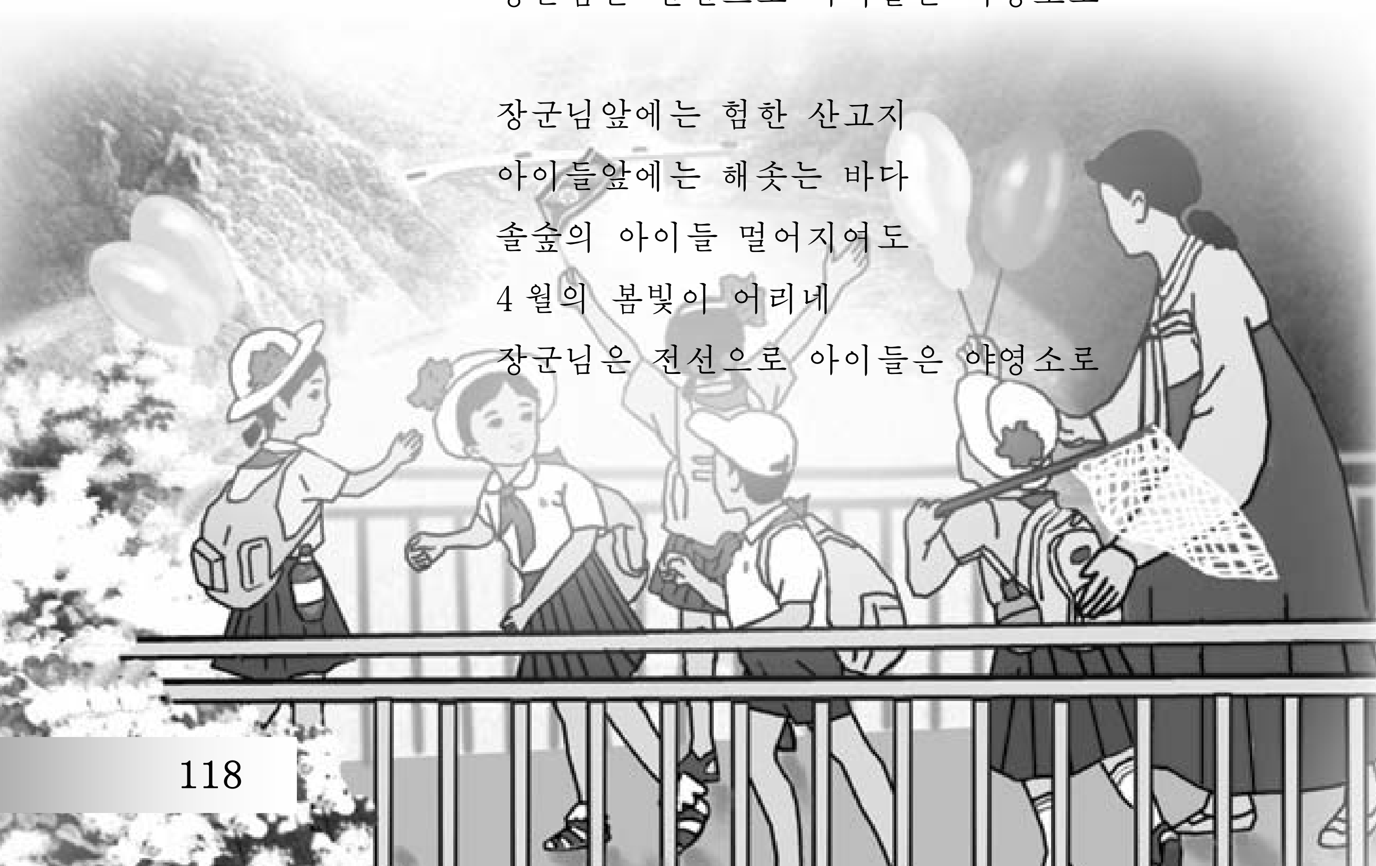
장군님과 아이들

김 정 곤

4 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장군님 명절은 천리전선길
아이들 명절은 즐거운 야영
저 멀리 언덕에 하얀 등산모
달리는 차창에 어리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장군님앞에는 험한 산고지
아이들앞에는 해솟는 바다
솔숲의 아이들 멀어지여도
4 월의 봄빛이 어리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가사의 매절마다 감정이 점차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읽기부호를 하고 한번 읊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세요.

천리전선길, 봄빛이 어리네, 즐거운, 해솟는 바다, 험한 산고지,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찾아가는 길, 멀어지여도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단어가 《전사, 대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가요?

병사— 군대의 《전사, 하사관》전체를 이르는 말.

❖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어리다— ①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다./ 창가에 어리다.

② 배여있거나 들어있다./ 정성이 어리다.

③ 물기가 고이다./ 눈물이 어리다.

④ 나이가 적다./ 어린 소년.

❖ 다음단어들을 보면서 《**솔숲**》의 뜻을 알아보자요.

솔: 솔방울, 솔잎, 솔대문

숲: 숲속, 백양나무숲, 잣나무숲

차창— 차의 창문.

내용을 알아내자요

❖ 다음의 시문장에서는 무엇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까?

장군님 〈 명절은 천리전선길 / 앞에는 험한 산고지

아이들 〈 명절은 즐거운 야영 / 앞에는 해솟는 바다

❖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끝없이 걷고걸으신 머나먼 전선길이 있어 이 땅우에 우리들의 행복이 꽃펴났습니다. 그 감정을 담아 이 가사를 이야기글로 고쳐 감동깊게 말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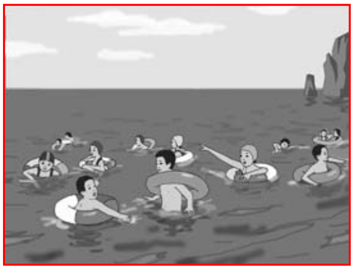
❖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구절을 왜 매절마다 반복하였는지 말해보세요.

❖ 3절에서는 점차 감정이 오르는것을 강조해주고있습니다.
어느 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야영의 나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3～4개 련으로 된 동요를 지어보자요.
그림을 보면서 야영생활기간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일들, 즐겁고 보람찼던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글감을 골라 써보자요.











동요, 동시를 어떻게 지을가요?

동요, 동시는 아이들을 위한 시입니다.

동시는 읊을수 있는 시이며 동요는 노래로 불리울수 있게 씌여진 시입니다.

동요, 동시를 지을 때는

▶ 감정의 차례를 잘 살려내며
▶ 생각하고 느낀것을 간단하면서도 깊이있게 밝혀야 하며
▶ 어휘표현들을 잘 골라써야 합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본문을 외워서 쓴 다음 가사의 쓰기형식에 맞게 행과 련을 맞추어 썼는가를 살펴보세요.
2. 단어 《어리다》가 가지는 서로 다른 뜻을 말하고 여러개의 뜻이 다 들어가게 3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3. 가사와 동요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4. 다음물음에 대답해보세요.
   - 경애하는 장군님 가시던 전선길은 어느 길과 잇닿아있습니까?
   - 학생은 이 가사를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5. 이 가사를 감정을 살리면서 노래로 불러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의 휴식도 없이 멀고 험한 전선길을 걷고걸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세월이 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일기

제 22 과

추억이 많은 날

(이 일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1953년 2월 16일에 쓰신 일기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오늘따라 아침부터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송이송이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니 그리운 어머니생각이 간절하다. 어머님은 백두산에서 찬바람, 눈바람을 다 맞으시며 나를 안아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백두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머님께서 조용히 부르시던 자장가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려오는것만 같다.

해방후 어느날 내가 나의 고향이 어딘가고 물었을 때 너의 고향은 백두산이라고 하면서 이담에 크거들랑 백두산에 가보라고 하시던 어머니.



그때에 나는 그 말씀의 뜻을 다는 몰랐지만 점점 커가면서 어머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된다.

더우기 오늘 생일날을 맞이하니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어머님이 바라시던대로 아버지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아, 오늘은 정말 훌륭한 우리 어머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싶은 날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어서 빨리 커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싶은 어머니!

지금은 어려서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

참으로 오늘은 추억이 많은 날이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일기는 깊은 사색에 잠겨 좀 낮은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내여 감동깊게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바로 읽으면서 써보세요.

함박눈이, 창밖을, 백두밀영의, 조용히, 쟁쟁히, 고향이, 물었을 때, 몰랐지만, 훌륭한, 추억이, 참으로, 잊지 않겠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함박눈— 천천히 탐스럽게 내리는 솜모양의 눈을 함박꽃에 비겨이르는 말.

함박눈이 내리는 모양 : 펑펑, ______, ______

밀영— 혁명활동을 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에 몰래 지어놓은 군대들의 집.

본문에 나오는 《백두밀영》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의미합니다.

우등불— 추위를 막기 위하여 나무토막이나 땔나무 같은것을 쌓아 놓고 피우는 불. 밖에서 피우는 불입니다.

이렇게 피우는 불에는 모닥불, 고깔불도 있습니다.

모닥불— 검불, 삭정이, 잎사귀 같은것을 모아 태우는 불.

고깔불— 여러개 나무토막을 웃끝이 한데 모이게 고깔모양으로 세워놓고 그밑에 불을 달아서 피우는 불.





❖ 다음의 표현들을 설명해보세요.

귀에 쟁쟁히 울리다, 세월의 눈비를 다 맞다

❖ 문장속에서 뜻을 리해하자요.

- 어머니의 당부를 **귀기울여** 잘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 오늘은 내 생일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우기** 오늘 학과경연에서 1등을 하니 마음은 하늘로 날아오를것만 같습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뜻깊은 일기를 쓰신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쓰신 일기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곱게 쓰자요

1953년 2월 16일

추억이 많은 날

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어서 빨리 커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싶은 어머니!

지금은 어려서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 글씨쓰기규범에 맞게 본문을 한번 곱게 쓰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일기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학생의 최근생활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일을 돌이켜보며 날자를 쓰고 일기를 한번 잘 써보자요.

일기는 어떻게 쓰는가?

형식 ▶ 제목을 달고 이야기식으로 쓸수도 있고
▶ 편지글형식으로 쓸수도 있으며
▶ 시로도 쓸수 있습니다.

내용 ▶ 하루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일
▶ 학습과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하여 어느 시기를 추억하시였습니까? 왜 그 시기를 간절하게 추억하시였는지 생각한것을 말해보세요.
2. 일기는 제목을 달고 쓸수도 있고 제목없이 쓸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3. 《우등불》, 《모닥불》, 《고깔불》로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4. 학생은 매일 일기를 쓰고있는지요? 일기를 매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학생이 알고있는것을 말해보세요.
5. 학생의 지금까지 생활에서 가장 추억깊은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간단히 써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실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이야기

제 23 과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개성의 한 마을에 한석봉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살림이 어려워 떡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석봉은 어릴 때부터 글씨쓰기를 몹시 즐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떡을 빚을 때면 석봉은 옆에서 글씨쓰기를 하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불러앉히였습니다.

《사람이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사는 보람이 있느니라. 너는 글씨 쓰는 재주가 있어보이니 공부를 해야겠다.》

어머니는 그동안 한푼두푼 모아 장만했던 붓과 종이, 벼루와 먹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석봉이는 어머니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석봉은 10년동안 글씨공부를 할 결심을 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이 있었던것입니다.

석봉은 선생님한테서 꾸준히 글씨쓰기를 배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집을 떠난지 7년이 되였습니다.

그동안 석봉이의 글씨는 놀랄만치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석봉의 글씨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석봉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뒤 석봉은 어머니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석봉이 집에 이르니 어머니는 몰라보게 자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떡함지와 칼도마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석봉이더러 글씨 쓸 차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석봉은 붓과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등잔불을 껐습니다.

《그간 공부한 글씨를 써봐라.》

어머니는 어둠속에서 떡을 썰었고 석봉은 글씨를 썼습니다.

잠시후 어머니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석봉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하나와 같이 고르로운데 자기가 써놓은 글씨는 똑같지 못하였습니다.



《어떠냐, 세상을 놀래우기는 아직 이른것 같구나.》

석봉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석봉은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석봉은 3년동안 꾸준히 글씨공부를 더 하였습니다.

마침내 석봉의 글씨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게 되였습니다.

한석봉의 글씨는 여러 비문과 병풍, 족자들에 씌여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물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외국사람들도 감탄하면서 그의 글씨를 다투어 구해갔습니다.

그리하여 한석봉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이 글씨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찾아서 읽기규범에 맞게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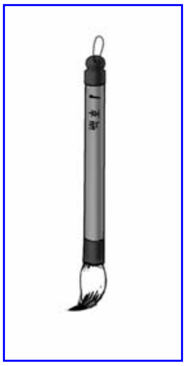
몹시, 떡을 빚을 때면, 불러앉히였다, 장만했던, 공손히, 써봐라, 놀랄만치, 꾸준히, 썰어놓은, 며칠뒤, 반갑게, 이른것 같구나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그림을 보면서 해당한 단어에 맞는것을 찾아보세요.

벼루, 먹, 붓, 등잔불, 비문, 족자, 병풍















푼— 옛날 돈의 단위. 10푼은 1냥입니다.

《한푼두푼》은 작은 돈을 조금씩조금씩 모을 때 쓰는 말입니다.

❖ 비슷한 말들에 줄을 그으세요.

평탄하다	**장만하다**	가지런하다
온순하게	**꾸준히**	례절바르게
부지런히	**공손히**	탄복하다
갖추다	**감탄하다**	쉬임없이
경탄하다	**고르롭다**	준비해놓다

❖ 본문에 맞는 뜻은 어느것일가요?

이르다— ① 목적지에 도착하다.

② 때가 되지 못하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켰습니까?

❖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한석봉은 어떻게 하여 이름난 서예가가 되였습니까? 한석봉의 훌륭한 점을 찾아 말해보세요.

❖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세요.

❖ 사람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말로 체계를 잡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어머니들이 얼마나 뜨거운 정성과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까.

그 여러가지 내용가운데서 잊을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글을 지어보자요.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속담의 뜻을 꼭 생각하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예술영화 《어머니의 행복》을 보았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와 이 영화에 나오는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시기, 다른 시대에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3～4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2. 붓글씨를 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입니까? 알고있는것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붓글을 50자정도 써보세요.
3.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3개 문장으로 짧은글을 지으세요.

   보람, 감탄하다
4.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것을 보여주는 속담 3개를 찾아쓰세요.
5. 학생은 붓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려서 력사에 이름을 남긴 우리 나라의 또 어떤 명인들을 알고있습니까? 생각해보고 표에 간단히 적어넣으세요.

명인이름	간단한 내용



꼭 새겨두자요

무슨 일이나 끝장을 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우화

제 24 과

여우에게 속히운 승냥이

문 재 홍

어느날 승냥이가 커다란 고기덩이를 훔쳐가지고 낑낑거리며 메고 가고있었습니다.

이때 여우가 부채질하며 타박타박 마주 걸어오고있었습니다.

(옳지, 저 여우놈을 시켜먹어야지.)

승냥이는 고기덩이를 내려놓고 여우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네 어딜 가나?》

승냥이는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먹이사냥을 가지요.》

여우는 승냥이의 고기덩이를 힐끔힐끔 넘겨다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힘들게 먹을것을 구하러 갈게 있나. 이 고기덩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어먹읍세.》

승냥이가 선심을 쓰듯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암, 한입으로 두말 하겠나?》

《그럼 얼마나 주겠어요?》

《자네가 들고가는것만큼 주지.》

《정말이예요? 그럼 함께 들고가자요.》

여우는 얼른 나무막대기를 얻어다가 고기덩이의 한가운데를 푹 꿨습니다.

《자, 맞들고가자요. 그런데 막대기의 이만큼은 내가 들고갈테니 승냥이형님은 조금만 들고가세요.》

여우는 승냥이를 생각해주는척 하면서 나무막대기를 자기쪽으로는 길게, 승냥이쪽으로는 짧게 차례지게 하였습니다.

《헤헤… 좋아좋아, 자넨 정말 상냥하고 마음이 곱군 그래. 내 고기 한근을 더 주겠어.》

승냥이는 승냥이대로 마음을 쓰는척 하였습니다. 승냥이와 여우는 고기덩이를 함께 메고 걸었습니다.

여우는 앞에서 냉큼냉큼 걸어가는데 승냥이는 낑낑거리며 끌려가다싶이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구, 난 막대기를 저 여우놈의 절반밖에 메지 않았는데 죽을 지경이구나.)

여우는 승냥이의 쩔쩔매는 꼴을 보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다가 혼자말로 이렇게 지껄이였습니다.

(한심하지. 막대기에서 힘이 나뉘여질 때 팔이 길수록 힘이 작아지고 팔이 짧을수록 힘이 더 커진다는것을 모르니 속히울수밖에… 어쨌든 고기덩이는 나에게 더 많이 차례질걸! 해해해…)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능청스러운 승냥이와 교활한 여우의 말이 목소리, 속도, 높낮이에서 어떻게 차이나는가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 다음단어들을 받아쓰기하고 맞는가를 교과서를 보면서 따져보세요.

한근을 더 주겠어, 정말이예요, 자네 어딜 가나, 맞들고가자요, 군침을 삼켰습니다, 마음이 곱군 그래, 두말하겠나, 속히울수밖에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근— 지난날 무게를 다는 단위. 한근은 600g입니다.

지난날에 무게와 량을 잴 때 쓰던 단위들을 더 찾아보자요.

한입으로 두말하다(성구)— 이미 말한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다.

❖ 함께 쓰이는 말을 보면서 단어의 뜻을 새겨보자요.

능청스럽게 — 엎어넘기다 / 거짓말하다 / 떠보다

선심 — 을 쓰다 / 을 베풀다

❖ 《**상냥하다**》의 뜻비슷한 말에 밑줄을, 뜻반대말에 □을 치세요.

친절하다,　거칠다,　부드럽다,　사납다

❖ 다음문장에서 □안에 들어간 말들을 살펴보세요.

- ▶ 여우가 부채질하며 [타박타박] 마주 걸어오고있었습니다.
- ▶ 여우는 승냥이의 고기덩이를 [힐끔힐끔] 넘겨다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 ▶ 고기덩이의 한가운데를 [푹] 찢습니다.
- ▶ 여우는 앞에서 [냉큼냉큼] 걸어갔습니다.

ㄱ. □안에 있는 말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ㄴ. 본문에서 이런 말들을 더 찾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여우는 고기덩이를 가볍게 메고 가는데 승냥이는 왜 땀을 뻘뻘 흘리며 메고 갑니까?

❖ 승냥이와 여우가 어떤 짐승인가를 두 짐승의 속생각을 다시 읽어보면서 평가해보세요.

❖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의 내용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자요.

만약 승냥이가 여우의 잔꾀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였을가요? 아래에 두가지 경우의 그림이 있는데 보면서 뒤부분의 이야기감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 말해보세요.





❖ 학생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꾸며 말했는지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요. 잘되였으면 왜 잘되였는지, 잘 안되였으면 왜 잘 안되였는지 원인도 함께 들어보자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우리는 자연시간에 자연의 리치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것을 배우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치를 가지고 지혜있게 행동하는 내용으로 동화이야기를 지어보자요.

- 그림을 보면서 한가지를 선택하세요.









- 제목을 달자요.
- 누구들이 나오게 하렵니까?
- 어디서 있은 일로 하렵니까?
- 알맞는 단어와 표현을 고르세요.
- 이야기를 차례차례 써나가세요.
- 속담 《눈 뜬 소경》의 뜻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글의 알맞는 부분에 써넣으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본문은 어떤 형태의 글입니까? 우화와 동화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동화 《짤룩이는 무엇을 몰랐나》와 대비하여 말해보세요.
2. 본문에서 엉큼한 승냥이와 깜찍한 여우의 웃음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10개 찾고 어떤 대상에게 쓰는가 갈라서 말해보세요.
3. 다음단어의 뜻을 말하고 짧은글을 지으세요.

   상냥하다, 선심, 군침
4. 지금까지 배운 우화의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쓰세요.
5. 지레대의 원리를 발견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과학자가 있어요. 누구이며 언제 발견하였는지 알아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 오빠, 누나들의 방조를 받아도 됩니다.



꼭 새겨두자요

뛰는 놈우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제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리치를 잘 모르면 속히워 손해보고맙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19과 — 24과)

1.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룡문대굴》에 어떤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해보세요.

  ㄴ. 한석봉의 이름은 다른 명인들과 달리 왜 항상 어머니와 함께 불리웁니까?

  ㄷ. 24과에서 《푹, 낑낑》처럼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말 10개이상 찾아 말해보세요.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그리시며 친히 지으신 노래 《나의 어머니》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리고 노래감상문을 5개 문장이상 되게 써보세요.

3. 여우와 승냥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3개 찾고 내용을 간단히 써보세요.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 몰라서 손해보는 내용을 담은 내용 등 여러가지를 찾으세요.

4. 가사 《장군님과 아이들》에서는 대조법이 쓰이고있습니다. 이런 대조법을 써서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을 담은 짧은글을 5~6개 문장으로 지으세요.

5.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 )안에 앞의 단어에 맞는 《만들다》의 뜻을 가진 단어를 찾아쓰세요.

국수를 (누르다)	국을 ( )	집을 ( )
두부를 ( )	김치를 ( )	천을 ( )
만두를 ( )	빵을 ( )	배를 ( )
지짐을 ( )	떡을 ( )	짚신을 ( )
고기를 ( )	죽을 ( )	약을 ( )

6. 조선화 《일자리를 얻고저》와 같이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보여주는 그림에는 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제목—
- 간단한 내용—

7. 수수께끼

한 사냥군이 승냥이를 잡아넣을 큼직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마리의 승냥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냥군은 어떻게 했을가요?

8. 아동영화《령리한 너구리》에서는 참으로 많은 지혜와 슬기를 보여주고있습니다. 학생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을 말해보세요.

- 제목—
- 어떤 지혜—
- 결과—

9. 다음의 단어들은 서로 같은 점이 있는것들을 보여주는것입니다. 그가운데서 다른것이 끼여있으면 찾고 리유를 설명하세요.

ㄱ. 꿀꿀이, 제비, 노루, 염소, 토끼

ㄴ. 사과, 도마도, 복숭아, 배, 살구

ㄷ. 배, 자동차, 비행기, 수레, 기차

ㄹ. 치마, 바지, 솜옷, 저고리, 양말

ㅁ. 밥, 국수, 사이다, 빵, 죽

10. 《장군님과 아이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또 알고있는것이 있습니까? 3~4편 찾아보고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노래로 불러보세요.

민화

제 25 과

흥부와 놀부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라는 심술꾸러기 형과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흥부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형과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형 놀부에게는 부모를 존경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돌아가자 형 놀부는 부모가 물려준 논과 밭이며 재산을 혼자 다 가지고 동생 흥부를 미워했습니다.

《부모들이 죽었는데 내가 동생네 식구들을 계속 먹일수야 없지…》

《그렇지 않구요.》

심술이 많은 놀부와 그의 안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느날 놀부는 동생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 흥부야. 언제까지 여기서 살겠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하여 흥부는 형한테 욕을 먹고 쫓겨나왔답니다. 흥부와 안해는 어린 자식들을 업고 손목을 잡아 이끌면서 울며 떠났습니다. 갈곳이 없는 흥부네는 산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부네는 하루종일 힘들게 일했으나 죽도 없어서 굶으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흥부는 형네 집에 가서 쌀을 좀 꾸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심술쟁이 놀부는 동생을 몽둥이로 때려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흥부네 집에 제비 한쌍이 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엄지들이 없는 짬에 구렝이가 제비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제비둥지로 기여들었습니다. 그바람에 제비새끼 한마리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고약한 놈.》

흥부는 삽으로 구렝이를 때려죽이고 꺾어진 제비새끼의 다리를 정성껏 동여맨 다음 둥지에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흥부에게 인사를 하고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해에 제비들은 또다시 흥부네 집에 찾아와 큰 박씨 하나를 떨구었습니다.

흥부는 아이들과 함께 박씨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하루밤을 자고나니 박씨에서 새싹이 크게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자 흥부네 집 지붕우에는 큰 박이 4개 달렸습니다.

추석날이였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송편도 만들고 찰떡도 치고 고기국도 끓였지만 아무것도 먹을것이 없는 흥부네 집에서는 박을 따서 박속이나 삶아먹기로 하였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주소 밀어주소
…

흥부는 안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톱으로 박을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짱!》 별안간 박이 쪼개지며 박속에서 곱게 생긴 아이 두명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흥부에게 보물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박에서는 온갖 세간살이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운 옷이며 천들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들과 쌀이 쏟아져나와 흥부는 잠간사이에 큰 부자가 되였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밸이 나서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놀부는 제비새끼 한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지끈 부러뜨리고는《애개개,불쌍두하지.》 하면서 제비다리를 대충 처매주었습니다.



그 제비는 그만 병신이 되였답니다.

《빨리 박씨를 가져다주렴.》

제비들은 놀부에게도 박씨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놀부네 집에는 박이 10개나 열렸습니다.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될테다.》

놀부는 사기가 나서 박을 탔습니다.

《펑!》 박이 타지자 박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놀부네 돈과 천들을 몽땅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망했구나, 망했어!》

놀부와 그의 안해는 엉엉 울었습니다.

놀부는 후끈 달아서 다음박을 또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박속에서 장수가 나왔습니다.

장수는 놀부를 한바탕 때리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다 걷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싸르릉》하고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놀부네 집이 무너졌습니다.

알거지가 된 놀부는 안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엉엉 울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마을사람들에게 제 집 재산을 나누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착한 흥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장과 심보사나운 놀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 읽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다음의 단어들을 소리내여 읽으면서 바르게 한번 쓰세요.

끓였지만, 삶아먹기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처매주었습니다, 될테다, 망했구나, 슬근슬근, 꾸어달라고, 미워했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의 비슷한 말들을 보면서 뜻을 새겨보자요.

대충— 대강, 아무렇게나, 망탕

알거지— 알건달, 비렁뱅이, 알짜거지

❖ 해당한 뜻과 반대말에 각각 줄을 그으세요.

이미 있던것이 없어지다	**동여매다**	착하다
도리에 어긋나게 나쁘다	**사라지다**	풀어놓다
둘둘 감아서 잡아매거나 묶다	**고약하다**	나타나다

❖본문내용에 맞는것이 어느것일가요?

타다— ① 올라앉다./ 말에 타다.

② 손가락으로 튀기여 소리내다./ 기타를 타다.

③ 무엇을 넣어서 풀다. / 물에 사탕가루를 타다.

④ 일을 잘해서 어떤 물건을 받다. / 상을 타다.

⑤ 량쪽으로 가르다. / 박을 타다.

❖ 어울리는 말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효성(부모를 잘 모시는 마음)이 **지극하다.**(매우 뜨겁고 강하다)

둥지(새의 보금자리)를 틀다.

박을 **켜다.**(톱 같은것으로 자르다)

가정이 **화목하다.**(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이가 좋다)

❖ 다음물음에 대답해보면서 《중》의 뜻을 찾아보자요.

- 중은 어디서 삽니까?
- 옷은 어떻게 입고 머리는 어떻습니까?
- 손에는 항상 무엇을 들고 입으로는 무엇을 외우고있습니까?

심술꾸러기— 심술+꾸러기(뒤붙이)

심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진것.

꾸러기— 어떤 버릇이 굳어진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추석날— 가을에 맞는 민속명절. 해마다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민속명절에는 또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 다음의 표현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뜻입니까?

- 털끌만큼도 없다
- 맞장구를 치다
- 밸이 나다
- 사기가 나다
- 손을 내밀다
- 후끈 달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흥부의 착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 놀부의 고약한 욕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보자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의 내용을 학급동무들앞에서 자기 말로 이야기해보세요.

- 환경과 대상에 맞게
- 손짓, 몸짓도 하면서
- 흥부, 놀부를 비롯한 인물들의 대화도 실지처럼 하세요.

❖ 학생은 이 민화를 배우고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학생은 형제나 동무들사이에 욕심을 부려본적이 없습니까?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말해보세요.

말은 대상과 환경에 맞게 하여야 한다

말은 글과는 달리 듣는 사람을 직접 대상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나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그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 ▶ 우선 듣는 사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대상이 웃사람인가, 아래사람인가, 동무인가 그리고 성별, 나이, 직업, 성격, 취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이 몇명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 다음으로 말이 진행되는 주위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 ▶ 다음으로 듣는 사람의 감정정서, 생각 등을 잘 살피면서 그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말할 때 흥미있게 듣는가 아니면 지루해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시점을 바꾸어 이야기를 고쳐써보자요.

제비가 자기를 대하는 흥부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놀부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것으로 재미있게 꾸며 써보자요.
그러니 제비가 주인공인셈입니다.




제비가 흥부의 집에 날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놀부네 집에 박씨를 물어다주는데까지 쓰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형제간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성구, 속담을 몇개 찾고 뜻을 설명해보세요.
2. 《심술꾸러기》처럼 《꾸러기》가 들어간 말을 3개 찾고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3. 이 과의 제목을 또 어떻게 달수 있을가요?
   이야기의 내용이 잘 담겨지면서도 짤막하게 2개이상 달아보세요.
4. 《흥부와 놀부》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알고있는것이 있는지요?
   제목을 쓰고 내용을 간단히 쓰세요.
   동화그림책이나 옛이야기책을 보면서 써도 좋습니다.
5. 다음속담의 뜻을 설명해보세요.
   -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
   - 죄는 지은데로 간다.
   -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본다.



꼭 새겨두자요

마음씨가 고우면 복을 받고 심보가 고약하면 화를 입기마련입니다.

동화

제 26 과

원숭이형제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입니다.)

아득한 옛날 어느 한 동산에 원숭이형제가 살고있었습니다. 일찌기 엄마를 잃은 그들은 제힘으로 살림을 꾸리고 먹을것도 구해들여야 하였습니다.

가을이 오자 형제는 이른아침에 자루와 바구니를 들고 밤나무골로 갔습니다.

형원숭이는 부지런히 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알 줏던 동생원숭이는 싫증이 나 빈 자루를 깔고 풀밭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푸른 하늘에서는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날고있었습니다.

(야! 나도 너처럼 날수 있다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아갈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에 잠겼던 동생원숭이는 수리개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수리개야, 네 날개를 나에게 좀 주렴.》

《그건 안돼. 난 날개가 없으면 먹이사냥도 못하구 살아갈수 없어.》

《정 그러면 깃이라도 몇개 주렴.》

수리개는 할수없이 량쪽 날개에서 깃을 몇개씩 뽑아주었습니다. 동생원숭이는 깃을 앞발에 제꺽 동여맨 다음 밤나무에 기여올라가 훌쩍 내리뛰였습니다. 그런데 수리개처럼 난다는것이 너럭바위우에 허궁 떨어져 엉치가죽이 쭉 벗겨지고 빨간 살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은 쑤시는듯 아팠습니다.

그가 엉엉 울고있는데 형이 사슴의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사슴의사는 상처에 송진약을 발라주면서 곧 나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던 동생원숭이는 그다음부터 아프다는 구실로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형이 일하러 나가자 동생원숭이는 뒤산에 놀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큰 나무밑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쿵 하고 무엇이 떨어져내렸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황소만 한 곰이였습니다.

동생원숭이는 곧 달려가 곰을 부축해주며 걱정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디 다치지 않았니?》

《아니, 난 지금 내 몸을 시험해보는중이야. 난 말이야, 가을에 밤이나 도토리를 실컷 먹고 살을 피둥피둥 찌운 다음 나무에서 떨어져보고 아프지 않으면 겨우내 먹지 않구 굴속에 들어가 잠을 잔단다.》

《그럼 넌 가을에 열매를 따느라 고생하지 않겠구나. 얼마나 좋겠니?》

곰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동생원숭이는 자기도 곰처럼 해보려고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밤을 마구 주어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간사이에 배가 고무풍선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동생원숭이는 배를 슬슬 어루만지다가 저도모르게 사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배가 터질것처럼 팽팽해지며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그러안고 엉엉 울면서 형을 찾았습니다.

형원숭이는 또다시 사슴의사를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손가락같은 굵은 침을 몇대 맞은 뒤에야 뚱뚱 불러올랐던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동생원숭이는 어떤 열매이건 꼭꼭 껍질을 벗겨먹군 하였습니다.

《애, 머루나 다래는 그냥 먹어도 일없어.》

《그러다 또 배탈나면 어쩔려구…》

동생의 말을 듣고있던 형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물론 배탈 안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넌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 그 병든 머리를 먼저 고쳐야 해.》

그러나 동생원숭이는 형의 말을 귀담아들을 대신 아프다는 핑게로 종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은 늘 동생의 몫까지 혼자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부지런히 일한 형원숭이는 앞발이 손으로 변하고 뒤발은 걸을수 있게 되여 점차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원숭이는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하여 남의 흉내만 내는 원숭이로 그냥 남아있게 되였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본문에 나오는 알맞는 둘받침글자를 □안에 써넣으세요.

엄마를 □은, □증이 나, 일하지 □고도, 날개가 □으면, 다치지 □았니, □은 침, 가라□기, 동생의 □까지

❖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형원숭이와 동생원숭이의 모습이 나타나게 두 학생씩 맡아 살려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함께 어울리는 말들에 줄을 그어보세요.

살림(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것)이	떠나다
유유히(천천히 느리게)	힘든데
먹이사냥(새나 짐승을 잡는 일)을	넉넉하다
가뜩이나(그러지 않아도)	걱정하다
부축해주며(옆에서 붙들어주며)	날아예다

❖ 본문에 맞는 뜻을 찾아보자요.

아득하다— ① 보이는것이 매우 멀리에 있다./ 아득한 하늘가
② 시간적으로 매우 오래다./ 아득한 옛날

깃— ① 새의 털./ 깃을 3개 뽑아주다.
② 새의 보금자리./ 따뜻한 깃을 찾다.

탈— ①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탈춤
② 몸이 정상이 못되고 병이 생긴것./ 배탈, 속탈

❖ 비슷한 말들을 보면서 뜻을 새겨보자요.

제꺽— 얼른, 빨리, 인차.

너럭바위— 넙적한 바위, 평평한 바위.

핑계— 구실, 리유, 원인.

송진—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진.

소나무의 줄기나, 잎, 껍질에 들어있어요. 송진은 약으로도 쓰입니다. 송진덩어리로 악기의 활을 닦으면 소리가 잘 납니다.

❖ 다음문장들의 □에 생동한 말들을 써넣으세요.

- 풀밭에 [ ] 드러누웠습니다.
- 너럭바위우에 [ ] 떨어져 엉치가죽이 [ ] 벗겨졌습니다.
- [ ] 잠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누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원숭이형제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동화의 기본내용을 말해보세요.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본문내용에 맞는 문장을 찾고 내용을 더 보충하면서 말해보세요.

- 동생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 로동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 남의 흉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리유는…

❖ 형원숭이와 동생원숭이가 일하는데서 무엇이 차이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였는지 대비하여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텔레비죤이나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본적이 있겠지요?

원숭이의 생활습성을 가지고 재미있는 동화글을 지어보자요.

고릴라나 침판지, 류인원과 같이 원숭이과에 속하는 다른 동물들이 나오게 해도 됩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면서도 흥미있게 꾸며보세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곰이 하는 말을 읽고 받아쓰기하세요.
   그리고 곰이 진짜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세요.
2. 《세살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을 생각해보고 본문의 내용과 결부시켜 3개 문장으로 된 짧은글을 지으세요.
3. 다음단어들의 두가지 뜻을 말하고 그 단어를 두번 넣어 매 뜻이 다 들어가도록 2개 문장의 짧은글을 각각 지으세요.

   아득하다, 깃, 탈
4. 본문에서 소리와 모양을 본딴말들을 모두 찾아쓰세요.
5. 원숭이가
   - 정말 남의 흉내를 잘 내는지
   - 무엇이나 꽉꽉 껍질을 벗겨먹는지
   - 엉치가죽이 쭉 벗겨져 빨간 살이 드러났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집식구들앞에서 말해보세요.



꼭 새겨두자요

힘들이지 않고 편안할것만 바라면 달라질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발전할수 있습니다.

가사

제 27 과

우리도 날으자 세계를 향하여

리 계 주

지덕체 큰 날개 활짝 펼쳐라
희망찬 래일이 우릴 부른다
달리는 조국의 발걸음 따라
우리도 내닫자 세계를 향해
아 우리도 날으자 날으자
세계를 향하여 날으자

과학의 높은 봉 단숨에 오를
탐구의 그 열정 끓어넘친다
조국이 나가는 최첨단돌파전
우리도 따르자 세계를 향해
아 우리도 날으자 날으자
세계를 향하여 날으자

이 땅에 발 붙이고 세계를 보라
미래를 앞당길 맹세 불탄다
선군의 새 세대 자랑 떨치며
우리도 날으자 세계를 향해
아 우리도 날으자 날으자
세계를 향하여 날으자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우리 조국이 세계를 향해 날으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좀 높은 목소리로 힘주어 읊어보세요.

❖ 읽을 때 달라지는 글자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다음의 단어들을 읽으면서 한번 써보세요.

래일이, 조국의, 발걸음, 내닫자, 날으자, 과학의, 높은 봉, 그 열정, 선군의, 발 붙이고, 앞당길, 끓어넘친다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을 보면서 뜻을 알아보자요.

과학： 과학자, 과학기술, 과학영화

탐구： 연구, 학구, 사색, 탐색

❖ 함께 쓰이는 말들을 살펴보고 해당한 뜻에 줄을 그으세요.

밝은		(를) 앞당기다	과거	다가올 앞날
휘황한	**미래**	(로) 달리자	현재	지금 또는 이제
찬란한		(가) 다가온다	미래	이미 지나간 날

최첨단돌파전— 최첨단+돌파전

최첨단— 앞선가운데서도 맨 앞장.

돌파전— 일정한 목표나 기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전투.

세계— 사람이 사는 사회전체 또는 지구우의 모든 나라.

본문에 나오는 《세계》라는 말은 《세계적인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단숨에— 딱 한번 숨을 쉬는 사이에. 즉 매우 빠른 시간을 표현하는 말.

희망차다— 희망+차다

희망—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것.

차다— 가득하다, 크다.

.

내용을 알아내자요

❖ 매 절에서 각각 무엇을 노래하고있습니까?

❖ 《이 땅에 발 붙이고 세계를 보라》, 이 구절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있습니까?

❖ 이 가사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지덕체 꽃피워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개 련으로 된 가사를 지어보세요. 《지덕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하세요.

본보기 1련: 지식의 높은 봉우리 향해
동무야 배우고 또 배우자
달리는 조국의 발걸음 따라
우리도 큰걸음 힘차게 내닫자

곱게 쓰자요

주의: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맙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가?)
《아홉살에 영생을 산 소녀》
[《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1), 7페지]
학습제일주의—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평양장경소학교 4학년 1반 박진일

❖ 이미 배운 본문들중에서 문장부호가 들어간 문장을 찾아 곱게 쓰자요.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가사를 외워 읊어보세요.
2. 다음의 문장표현들을 넣어 각각 3개 문장의 글을 지어보세요.
   - 희망찬 래일이 우릴 부른다.
   - 세계를 향하여 날으자.
   - 탐구의 그 열정 끓어넘친다.
3. 《최첨단》과 《CNC》의 뜻은 무엇일가요?
   어떤 련관이 있을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4. 3개의 단어가 한문장에 들어가게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 과학탐구, 최첨단돌파전, 지덕체
   - 과거, 현재, 미래
5. 다음의 문장에서 반복법을 쓴 부분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아래의 문장을 반복법으로 고쳐보세요.
   - 혁명군아 혁명군아 너 어데 가니
     총과 폭탄 가지고 너 어데 가니
   -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하여

반복법이란 이렇게 한 문장안에서 같은 말을 두번이상 반복해서 쓰는 수법을 말합니다.



꼭 새겨두자요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조국의 발걸음 따라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날읍시다.

편지

제 28 과

보고싶은 영수에게

영수야, 그새 잘 있었니?

너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어. 새로 사귄 동무들이 다 마음에 든다니 기쁘구나. 그 동무들을 나도 만나보고싶은 심정이야.

영수, 너는 《소년신문》에 난 우리들을 축하한다고 했지? 고마와. 그 축하는 마땅히 너도 함께 받아야 해. 돌고개철길엔 너의 아름다운 마음과 땀도 깃들어있지 않니.

영수, 생각나니?

네가 전학가기 전에 있은 분단총회가 말이야. 그때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돌고개의 5리구간 철길을 잘 꾸리자고 결정했었지. 우린 그걸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우린 고개마루에서 만나군 했었지.

네가 간 다음에도 변함없이 철길에 자갈도 더 깔아놓고 철길뚝에 갖가지 꽃과 왜싸리도 더 옮겨심었어.

철길대아저씨들도 우리 구간이 제일 잘 꾸려졌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칭찬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선생님이 사진기를 메고 학교에 찾아왔더구나. 그때 우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온 나라에 사진까지 찍어 소개하겠니.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서 너를 생각했어. 네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날 우린 앞으로도 분단총회결정대로 철길을 더 잘 꾸리리라 다짐했단다.

영수, 너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곳에서 좋은 일을 계속 잘하리라 믿는다.

우리 서로 경쟁하자.

그럼 학습과 소년단생활에서 언제나 앞서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쓰겠다.

잘 있어.

다음소식을 또 기다려.

항상준비!

철남으로부터
6월 9일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과는 동무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상대방과 말하듯이 정다운 감정을 가지고 살려읽어보세요.

❖ 이 편지글의 첫머리와 마지막인사말을 읽어보고 위치를 잘 보면서 한번 정확히 써보세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였을가요?

사귀다— ① 알게 되여 가깝게 지내다.
② 선 같은것들이 어느 점에서 만나다.

소개하다— ①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알도록 하다.
② 사람들이나 기관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다.

❖ 다음말들을 보면서 맞는 뜻에 밑줄을 그으세요.

마땅히— 당연히, 공연히, 응당히, 물론
깃들다— 스며들다, 간직되다, 담겨있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정하다, 확고하다
실천하다— 행동하다, 실행하다, 움직이다

❖ 편지에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자요.
보고싶은 심정이야, 너를 생각하였어, 고마와
이밖에도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내용을 알아내자요

❖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 친근한 동무사이에 오고가는 편지라는것을 어디서 잘 보여줍니까?

❖ 편지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이 편지에는 철남이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있습니까?
편지를 받는 동무의 심정은 어떠할가요? 자기 말로 말해보세요.

❖ 철길을 돕는 좋은일하기운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학생은 어떤 일들을 해보았습니까?

❖ 웃사람에게 쓰는 편지, 친근한 동무에게 쓰는 편지라는것이 잘 나타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에 맞게 학생이 생각한 제목, 맺는말들을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자기가 보내고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자요.

-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 체계를 세우세요.
- 다 쓴 다음 생각한대로 썼는가를 살펴보자요.

❖ 편지를 보내자요.

봉투의 오른쪽 맨우에는 우표를 붙입니다.

봉투에 어떻게 쓰는지 학습장에 먼저 써보세요.

상식

편지의 형태

내용에 따라 문안편지, 축하편지, 위문편지, 알림편지, 부탁편지, 년하장 등이 있습니다.

또 겉봉의 형식에 따라 봉투편지, 엽서편지, 쪽지편지 등이 있습니다.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학생은 편지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감정을 되새겨보면서 편지는 어떤 때 쓰는지 말해보세요.
2. 새해축하장 또는 생일축하장을 써보세요. 선생님, 친한 동무들, 군대나간 형님, 누나, 오빠, 언니 등 보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세요.
3. 다음단어들의 두가지 뜻을 말하고 한 문장에 넣어 각각 짧은 글을 지으세요.

   사귀다, 소개하다

4.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맞게 맺음말을 례들어 쓰세요.

   웃사람, 친한 동무, 아래사람

5. 다음의 단어들을 문화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찾는 순서를 차례로 학습장에 쓰세요.

   편지, 회답, 철길

문화어사전을 리용합시다

우리는 교과서나 책을 읽을 때 가끔 그 뜻을 모르는 단어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때에는 문화어사전에서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문화어사전은 우리 말의 자모순으로 단어들을 묶었습니다.

사전에 올려서 뜻을 표시한 단어를 올림말이라고 합니다.

사전의 첫머리에 있는 《일러두기》를 참고하세요.



꼭 새겨두자요

나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훌륭한 소년단원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단편소설

제 29 과

속이 큰 아이

리준길

새 고장으로 이사온 첫날이였습니다.

새 담임선생님을 따라 《4학년 2반》이라고 쓴 패쪽이 걸린 교실로 들어서자 숱한 눈동자들이 한꺼번에 나한테로 쏠렸습니다.

나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으며 선생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김대범학생이 동무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게 되였습니다. 체육에 소질이 있는 좋은 동무입니다.》

나는 우쭐해져서 저도모르게 그만 히쭉 웃고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들모두가 웃어댔습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이 앉으라고 정해준 빈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나보다 키가 작을사 한 새 짝패동무가 웃는 얼굴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도두룩한 앞이마와 그에 지지 않으려는듯 불룩하니 솟은 뒤통수, 서글서글한 눈매… 좋은 애일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주 웃어보이며 그 애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걸상에서는 삐걱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히 다루었는지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책상우에는 둥글넙적한 내 얼굴이 그대로 얼른거리였습니다.

그 애의 왼팔에 달린 열성자표식을 슬쩍 훔쳐보니 두줄에 별 하나, 분단위원이였습니다.

이름을 물었더니 그 애는 대답대신 걸상에 써붙인 《고방남》이라는 제 이름표를 가리켜보였습니다.

어느새 첫 시간 수업종이 울리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교과서와 함께 새 학습장을 척 꺼내놓았습니다. 만년필도 전날에 새로 산것을 쑥 뽑아들었습니다. 새 학교에 전학온것만큼 학용품도 모두 새것을 쓰고싶었던거지요.

새 학습장 뚜껑에 《김대범》이라고 제 이름을 박아써보았습니다. 너무 가늘게 내려서 막 안타까왔습니다. 나는 글을 써도 붓글처럼 큼직큼직하게, 굵직굵직하게 쓰는 성미니까요.

만년필촉을 좀 길들일 작정으로 학습장을 한장 쭉 찢었습니다.

방남이는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눈이 둥그래서 《여기 련습종이가 있는데.》 하면서 제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일없어, 그까짓 한장쯤…》

나는 그만두라고 그 애의 팔을 툭 치고는 찢어낸 종이에 이런저런 글자들을 마구 휘갈겨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짝패가 괜찮은 애긴 한데 속은 크지 못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머리속에 살며시 찾아드는것을 나로서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나는 축구공을 구럭에 넣어들고 학교로 종종걸음을 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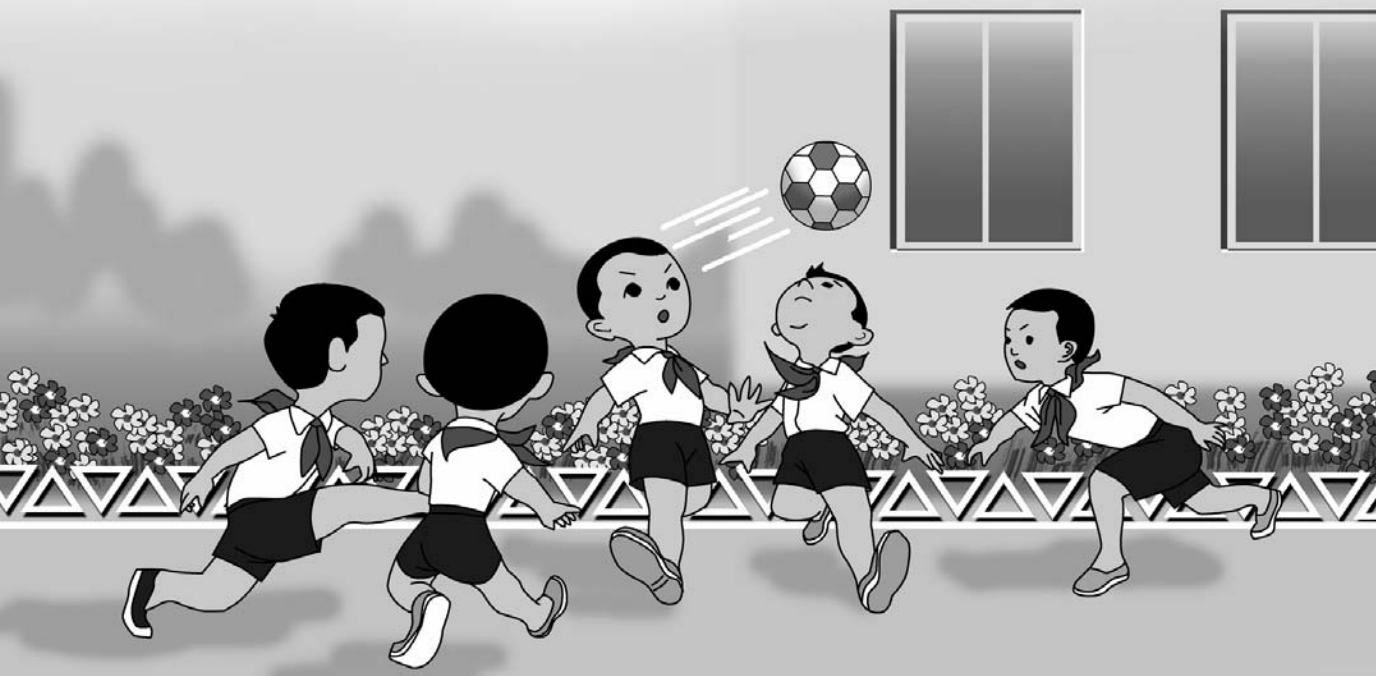
학급에 축구공이 한개뿐이여서 모든 아이들이 실컷 공차기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대담하게 새 축구공을 학급에 아주 내놓을 작정을 한것입니다. 나는 워낙 속이 큰 아이니까요.

학교에 이르자 나는 우리 교실쪽을 향해 축구공이 든 구럭을 흔들어보이며 어서 나오라고 웨쳤습니다.

축구공을 알아본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교실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나는 얼른 축구공을 구럭에서 꺼내여 그 애들한테로 탕 차보냈습니다.

누구의 발에 맞았는지 공은 다시 내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오동통 오동통 튀여오르면서 사뭇 기분좋게 굴러왔습니다.



순간 나는 상대편의 꼴문으로 비호처럼 육박해들어가는 중앙공격수의 심정이 되여가지고 냅다 맞받아나가면서 오른발로 세차게 내질렀습니다.

공은 어지간히 높이 뜨면서 아뿔싸! 교실창문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쨍가당!》

그만에야 유리 한장이 박산났습니다.

모두 입들을 딱 벌리였습니다.

《어쩌자구 여기서 공을 차니?》

방남이가 언짢은 기색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땅으로 깎아찬다는게 그만…》

나는 창유리를 깨뜨린 죄가 발에 있기라도 한듯 운동화 신은 발을 내려다보며 멋적게 웃었습니다.

《운동장두 아닌데서 공을 차면 돼? 유리를 마사놓구두 웃기만 하구…》

방남이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는것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됐다, 됐어. 유리는 내가 끼워넣겠으니 걱정말아.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유리를 깬게 큰일이 아니란 말야? 잘못이 없다는거야?》

《누가 잘했다니? 우정 그랬단 큰일나겠구나. 쬐쬐하게스리.》

《쬐쬐하다구? 유리를 깨먹구두 뻐젓하게 노는 애는 속이 하늘땅만큼 크구?》

《됐다, 더 말하지 말자.》

그길로 힝하니 교실로 들어간 나는 숨을 씨근거리며 한동안 언짢은 낯빛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공연히 축구공을 내왔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를 깨뜨린건 물론 잘못이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새 축구공을 아낌없이 학급에 내놓은 애가 아차실수로 유리한장 깨뜨린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새파래서 그럴거야 어디 있습니까.

(엥이, 자리를 옮겨달래야겠어. 어디 맘이 맞아야 같이 앉지.)

나는 쪼물짝하게 노는 방남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노여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난 참 별스럽게 생겨먹어서 이따금 동무들과 다투고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인차 헤벌쭉 웃어대는 성미랍니다.

이날도 교실청소를 끝내고 아침모임을 하는 사이에 방남이에 대한 노여움은 봄눈마냥 스르르 녹아버렸습니다.

뻥 뚫린 창구멍으로 찬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책상우에 놓은 교과서와 학습장들이 자꾸 번져졌습니다. 창가에 바투 앉은 방남이의 책은 더 세게 번져졌습니다. 그 애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남각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애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벌쭉 웃었습니다.

방남이는 대뜸 눈살이 꼿꼿해졌습니다. 《각하》라는 말때문에 자기를 놀려대는줄로 안 모양이지요.

《넌 좀 꽁한 축이구나. 아직까지두 내가 미워서 그러니? 아깐 내가 잘못했어. 이건 진짜야, 진짜.》

나는 가슴을 두드려보였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방남이도 방긋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든 더 걸어보려고 슬그머니 그 애의 학습장을 넘겨다보던 나는 그만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참 별난 일이였습니다. 글쎄 학습장의 매 페지마다에 번호가 매겨져있는게 아닙니까.

《너두 이렇게 해봐. 이것두 학습장을 망탕 찢는 버릇을 없애는 한가지 방법이야.》

내가 희한해하는것을 보고 방남이가 말해주었습니다. 듣고보니 참 그럴듯 한 말이였습니다.



(애가 이거 보통 알뜰한 애가 아닌데.)

그러고보면 창유리를 깨뜨렸다고 나에게 핀잔을 준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생각되였습니다. 종이 한장과 유리 한장은 대비도 안되니까요.

(공부가 끝나거든 제꺽 유리를 구해다 끼워야겠어.)

나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냅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학교에서 있은 일을 이야기하고는 얼른 유리 한장만 구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에그, 전학오자바람으로 벌써 사고를 쳤니?》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닌 참, 그게 무슨 사고라구 그래요?》

《사고 아니문… 방금 회관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잘할데 대한 강연을 듣구서 나오는 길인데 우리 집안에서두 고쳐야 할게 많다. 소학생이긴 하지만 너두 이젠 정신을 차려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만 물건을 아껴써두 그게 얼마나 큰건지 아니? 어디서나 살림살이를 그렇게 알뜰히 해나가야 나라가 더 부강해지구 조국통일도 앞당길수 있는거란다.》

나는 한숨만 호— 하고 내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보니 유리 한장을 깬게 사고는 사고구나 생각되였습니다.

어머니는 풍경화에 넣자고 사두었던 유리를 한장 꺼내주면서 제발 조심히 가져가라고 나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좋아라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의 목공실에 들려 목수할아버지를 만나 굽석 인사를 하고 유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리를 넣어주고 돌아가자 나는 마음이 여간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방남이한테 보여주고싶었습니다.

때마침 뒤뜰안청소를 끝내고 방남이가 교실로 들어서자 나는 으쓱해서 그 애의 어깨를 툭 치며 창문을 가리켜보였습니다.

《보라. 난 시시한 애는 아니야. 난 한다면 해.》

방남이는 창유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수고했구나. 그런데… 유리를 끼운게 그렇게두 장해뵈니?》

《장하잖으문?…》

《넌 참… 그래서 이젠 제 잘못이 다 고쳐졌다구 생각하니?》

《뭐? 그럼 내가 아직두 잘못을 고치지 못했다는거야?》

《그러찮구. 어쨌든 나라의 유리가 한장 없어져버리지 않았니.》

《나라의 유리가 왜 없어져? 이자 끼워넣었는데두? 없어지긴 우리 집 유리가 한장 없어졌을뿐이야.》

《넌 정말… 집에 있는 유리두 크게 보면 다 나라의것이지 뭐. 그러찮니?》

나는 그 말에는 더 대답을 못하고말았습니다. 방남이의 말이 옳은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풍경화에 끼우자면 유리를 또 한장 써야겠으니 나라의것이 어쨌든 한장 축나게 되는셈이거든요.

방남이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유리 한장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모든 비품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니. 그래야 우리가 이담에 커서 나라의 큰 살림을 맡아서 잘 꾸려나갈수 있는거지 뭐.》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장군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쳤습니다.

《알겠어. 내 다신 안 그럴게.》

나는 속이 큰 아이답게 시원스레 말했습니다. 정말 꼭 고칠 생각이였습니다.

나는 창밖에 보기 흉하게 널려있을 깨여진 유리쪼각들을 생각하고는 그거라도 깨끗이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쓰레박에는 벌써 유리쪼각들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방남이가 했을거라고 짐작되였습니다. 그 애가 주어담은걸 내가 내다버리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쓰레박을 들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대범이, 내다버리자구 그러니?》

어느새 방남이가 알고 따라오더니 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두 버리지 말구 모아서 유리공장에 가져가면 다시 유리가 된대. 저기 페물창고로 가자.》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런 단순한 리치를 난 왜 몰랐을가요?

이제 보니 내 짝패동무 방남이는 참 좋은 애인걸 몰랐습니다.

《방남이! 너야말로 진짜 속이 큰 아이구나!》

나는 방남이를 향해 이렇게 웨치고싶은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본문의 글 형태는 무엇입니까? 설명문장, 대화문장, 묘사문장은 각각 어떻게 읽어야 할가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 이 본문에는 줄임표가 많이 나옵니다. 다 찾아서 그 문장을 발음법대로 정확히 쓰고 어떤 경우에 쓰이였는가를 설명해보세요.

줄임표의 쓰임

- 일부 내용이 생략되였음을 나타낼 때
-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였음을 나타낼 때
- 대화에서 침묵을 지킬 때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짝패— 서로 한짝을 이룬 사람. 두명을 념두에 둘 때 씁니다.

풍경화— 자연의 여러가지 모습을 그린 그림.

❖ 비슷한 말, 반대말들에 각각 줄을 그으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볼록하다	**술한.**	뛰여나오다
뛰여들다	**도두룩하다**	보태다
거뜬하다	**축나다**	오목하다
썩 많은	**개운하다**	얼마 안되는
줄어들다	**육박해들어가다**	무겁다

❖ 다음단어들의 해당한 뜻에 줄을 그으세요.

멋적다	매우 보기 드물고 특별하다.
빼젓하다	말로 부탁하며 강조하다.
희한하다	어색하고 잘 어울리지 않다.
당부하다	아주 떳떳하고 의젓하다.

❖ 어떤 감정, 어떤 성격일가요? 맞는 곳에 밑줄을 그으세요.

노여움: 좋을 때, 안타까울 때, 성났을 때, 힘들 때

꽁하다: 죄죄하다, 쪼물짝하다, 시시하다, 속이 좁다

❖ 다음단어들중에서 알맞는 단어를 [　　]안에 써넣으세요.

소질, 작정, 자책, 페물, 어지간히

재능, 취미, 능력— [　　]　　오물, 쓰레기— [　　]

결심, 결의, 계획— [　　]　　잘못, 책임, 반성— [　　]

어느 정도, 그만하면— [　　]

❖ 본래의 말을 쓰고 본문에 줄임말을 쓴 리유를 설명해보세요.

장하잖으문— 그러찮구— 맘이— 장해뵈니—

내용을 알아내자요

❖ 어떤 아이들이 나옵니까? 이름을 불러보세요.

❖ 대범이는 전학온 첫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대범이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방남이는 대범이를 어떻게 타일러줍니까?

방남이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 이 단편소설의 기본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방남이와 대범이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서로 대비해보면서 아래의 표에 알맞는 내용을 쓰고 말해보세요.

생김새와 정황에 따라	방남이	대범이
생김새		
처음 보았을 때		
종이를 찢었을 때		
교실유리를 깼을 때		
유리를 넣고난 다음		
깨진 유리쪼각을 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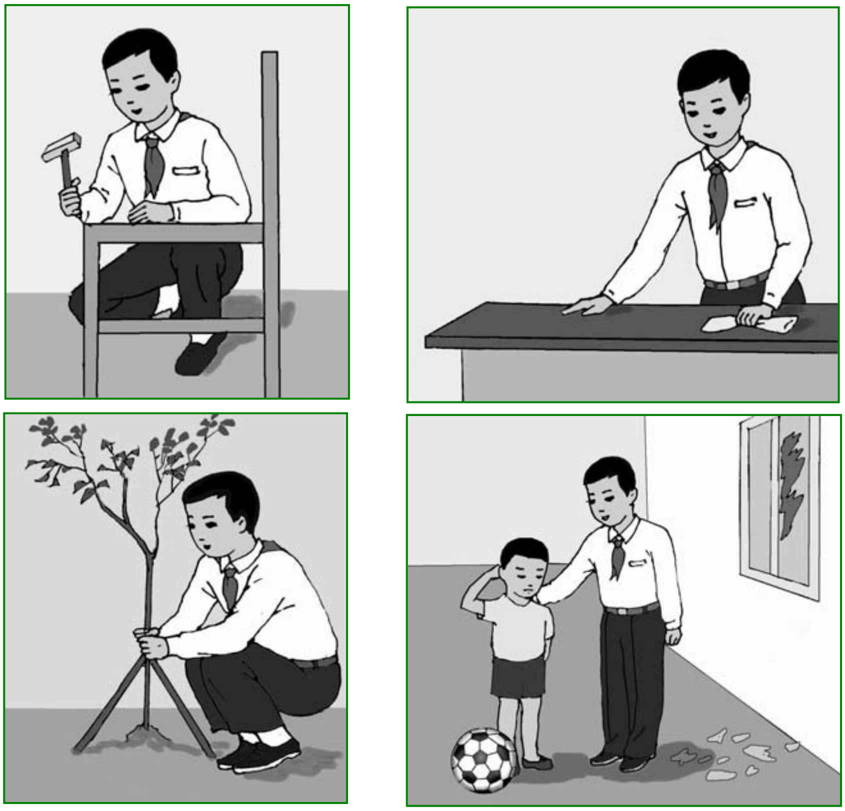
❖ 글의 제목은 대체로 주인공의 이름이나 혹은 주인공과 관련한 일을 놓고 달게 됩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왜 본문의 제목을 《속이 큰 아이》라고 하였습니까?

❖ 학생이 따라배우고싶은 아이는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앞으로의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말해보세요.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 대범이는 그후 어떻게 되였을가요? 분명 방남이처럼 진짜 속이 큰 아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후 대범이의 생활을 보여주는 글을 상상하여 지어보세오.



이어질 내용을 재미있게 상상하려면

일어난 일, 일이 벌어진 차례, 나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 인물이 한 일과 그 일의 결과가 어떤가?

▶ 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가 맞는가?

▶ 앞뒤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이 본문은 아동소설인것만큼 아이들의 심리에 맞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을 찾아서 쓰고 뜻을 설명해보세요.
2. 다음의 문장들을 보세요. 내용은 서로 같지만 무엇이 다를가요?

    그만에야 유리 한장이 박산났습니다. 모두 입들을 딱 벌렸습니다.

    그만에야 유리 한장이 박산나자 모두 입들을 딱 벌렸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쓴 문장들을 더 찾아보세요.
3. 단어 《녹다》가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3개 찾고 각각 짧은 글을 지으세요.
4. 자기 학급에서 방남이처럼 진짜 속이 큰 아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서 《방남이와 나》 또는 다른 제목으로 5~6개 문장으로 되게 이야기글을 지어보세요.
5. 본문에 나오는 직유법들을 모두 찾아쓰고 뜻을 설명해보세요.

생동한 표현수법— 직유법

직유법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성질이 비슷한 다른것에 직접 비겨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례: 옥이의 눈에는 이슬같은 눈물이 가득 고였다.

직유법은 《~와 , ~같은, ~같이, ~처럼, ~듯, ~듯이, ~만큼, ~마냥, ~인양》등과 같은 말들이 붙어서 이루어집니다.



꼭 새겨두자요

학생들도 나라의 주인이 되여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가야 나라가 더 부강해집니다.

동요

제 30 과

김정일장군님의 군대될래요

김 승 도



백두의 눈보라 헤쳐온 투사들
그 모습 새기며 우리 자라요
우리는 자랑찬 혁명의 계승자
김정일장군님의 군대될래요



불타는 락동강 건느던 영웅들
그 모습 새기며 우리 자라요
우리는 자랑찬 혁명의 계승자
김정일장군님의 군대될래요



선렬들 심장에 높뛰던 붉은 피
우리의 심장에 끓어넘쳐요
우리는 자랑찬 혁명의 계승자
김정일장군님의 군대될래요

바로 읽고 바로 쓰자요

❖ 이 시는 씩씩하고 힘있게 읊어야 합니다. 한개 련씩 이어읊어보세요.

❖ 다음의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세요.

백두의, 헤쳐온, 혁명의 계승자, 될래요, 락동강, 높뛰던, 붉은 피, 영웅들, 자랑찬, 투사들, 끓어넘쳐요

어려운 말을 풀어보자요

❖ 다음단어들의 뜻을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찾아보자요.

투사— 정의로운 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서 목숨바쳐 싸우는 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해방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운 혁명가들을 《투사》라고 합니다.

선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

계승자— 사업이나 전통 같은것을 이어받는 사람이나 조직.

❖ 어울리는 말들을 보면서 본문에 쓰인 뜻을 알아보자요.

가슴에 머리에	〉 **새기다**	나무에 도장을	〉 새기다

❖ 다음문장을 보면서 뜻을 리해하자요.

우리는 사나운 **눈보라**(바람과 함께 세차게 흩날리는 눈)를 헤치고 드디여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알아내자요

❖ 1련에서 우리들이 새기는 모습은 누구들의 모습입니까?

❖ 2련에서 우리들이 새기는 모습은 누구들의 모습입니까?

❖ 3련에서 우리 심장에 끓어넘치는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 이 동요의 기본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미있게, 조리있게 말해보자요

❖ 3련을 이야기글로 풀어서 말해보세요.

❖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서 줄을 친 부분에 리유를 쓰고 동무들앞에서 말해보세요.

- 내가 언제나 따르고싶은 영웅은 리수복영웅입니다.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입니다.
- 나는 노래《빨리 되고파》를 즐겨부릅니다.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입니다.
- 나는 군사놀이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입니다.
- 나는 영예군인아저씨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때문입니다.

멋진 글을 지어보자요

학생은 텔레비죤에서 열병식대오를 보았지요?

름름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것을 동요로 써보자요.

- 제목을 생각하세요.
- 동요에 어떤 뜻을 담으려 합니까?.
- 1, 2, 3련의 내용을 구상하세요.
- 알맞는 말과 표현들을 찾아보세요.

  다음의 단어와 표현들을 참고하세요.

  신심드높이 나가는 발구름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는 만세소리
  우렁찬 우리의 웨침



배운것을 다져보자요

1. 1~3련을 외워 읊고 동요쓰기규칙대로 잘 써보세요.
2. 다음단어들의 뜻을 말하고 절별내용이 들어가게 각각 짧은글을 지으세요.

   투사, 영웅, 계승자
3. 혁명적군인가정, 인민군대후방가족이란 어떤 가정을 말할가요? 학생이 알고있는것을 말해보세요.
4. 단어 《새기다》는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있습니다. 각각 짧은글을 지어서 나타내보세요.
5. 노래 《빨리 되고파》를 감정을 살려서 다같이 한번 불러보자요.





꼭 새겨두자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군대가 되는것은 우리들의 가장 큰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다시한번 익혀보자요
(25과 — 30과)

1. 25—30과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음 □안에 알맞는 이름들을 써넣으세요.

마음이 착한 □, 마음 고약한 □,
부지런한 □, 건달뱅이 □,
성격좋은 □, 알뜰한 살림군 □,
좋은일하는 훌륭한 소년단원들 □

2. 다음물음에 대답하세요.

ㄱ.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해보세요.

ㄴ. 훌륭한 인민군대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학생은 편지를 써본적이 있습니까?

집에 왔다가 학교에 빨리 가야겠는데 어머니에게 급히 알려줄 일이 생겼을 때 쪽지편지를 어떻게 쓰겠는지 한번 써보세요. 전화는 할수 없는 정황입니다.

4. 다음문장에서 밑줄친 말을 직유법으로 고치세요.

- <u>고운</u> 리봉을 달았다.
- 옥이의 눈은 <u>반짝</u> 빛났다.
- 철이는 <u>빨리</u> 달렸다.
- 더운 여름날 철이의 얼굴은 <u>막</u> 달아올랐다.
- 어머니의 눈에는 <u>많은</u> 눈물이 가득 고였다.

5. 수수께끼

- 하루에 두번만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는 어떤 시계일가요?
- 제일 달기도 하고 제일 쓰기도 한것이 무엇일가요?

6. 민화 《흥부와 놀부》와 동화 《원숭이형제》에서는 다같이 형제들이 나옵니다. 두 형제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내용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세요.

7. 다음단어들의 뜻을 찾고 두 단어를 한 문장안에 넣어 짧은글을 지으세요.

부치다	한참	련습
붙이다	한창	연습

8. 다음말이 어느때에 진행되는 일을 나타내는가를 찾고 알맞는 단어들끼리 줄을 그으세요.

닿는	과거	먹으려 한다
닿았다	현재	먹었다
닿을것이다	미래	먹는

9. 다음의 속담과 명언이 어느 과의 내용에 맞는가를 찾고 그 리유를 설명하세요.

-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다.
- 티끌모아 큰산.
- 절구공이도 3년 갈면 바늘이 된다.
- 고운 일 하면 고운 밥 먹는다.

10. 학생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과목에 취미를 가지고있습니까? 또 무엇을 세계적수준으로 만들고싶습니까? 자기의 희망과 소원을 담아 5개 문장으로 된 글을 지어보세요.

국 어

(소학교 제4학년용)

집 필 교수 박사 문재홍, 송일녀, 공훈기자 김승도,
백광명, 부교수 리수향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엄정숙　　그 림 강성훈, 신성일, 강청,
편 성 박성혁　　홍경학, 리은옥
장 정 박성혁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3월 13일　　발 행 주체101(2012)년 3월 23일

교-12-보-634　　값 10 원